

| 26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4949.59 | ↑ 코스닥 | 1064.41 |
| | (-40.48) | | (+70.48) |
| ↓ 금리 (국고채 3년) | 3.096 | ↓ 환율 (원·달러) | 1440.50 |
| | (-0.041) | | (-25.30) |

삼성·SK
낸드가격 인상 예고
합산 영업이익 250조
02



60조 加 잠수함 사업에 民官 ‘팀코리아’ 총력

〈캐나다〉

강훈식 등 방산 특사단, 출국

정의선·김동관·주원호 등 동행
정부 외교력·기업 역량 ‘공동대응’

한화그룹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외교와 산업을 결합한 ‘팀 코리아’ 체제로 현지 공략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포함된 방산 특사단은 이날 오전 캐나다로 출국했다. 특사단은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양국 간 방산 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한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일정에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주원호HD현대중공업 합성·중형선사업부 사장 등 주요 민간 기업 경영진도 동행했다. 캐나다가 잠수함 도입과 함께 대규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등 정부의 캐나다 방산 협력을 지원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자자와 산업 협력을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 외교력과 기업의 산업 역량을 결합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쟁국인 독일 역시 폭스바겐그룹의 현지 자동차 공장 설립 등을 협력 카드로 내세운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1989년 캐나다 부르봉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나 4년 만에 철수한 전례가 있어 완성차 생산시설보다는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과 수소, 미래 모빌리티

등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 영역이 캐나다 측의 관심 분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역시 항공·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주전의 중심에 선 한화그룹은 이미 캐나다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 법인 지사장으로 글렌 코플랜드 전 캐나다 해군 장교를 영입했다. 코플랜드 지사장은 캐나다 해군에서 22년간 복무한 뒤 록히드마틴 캐나다에서 할리팩스급 초계함 현대화 사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한화는 캐나다 에너지 개발사 퍼뮤즈 에너지와 뉴펀들랜드-라브라도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잠수함 건조 이후 유지·보수·운영(MRO)과 성능 개량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장기 협력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면에 계속〉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93.93)보다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에 거래를 마친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

/뉴시스

코스닥 7% 상승 4년만에 ‘천스닥’

코스닥지수가 26일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이날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에 마감했다. 이는 2004년 코스닥 지수체계 개편 이후 최고치다.

지수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거래소는 오전 9시 59분 코스닥 150선물가격이 전장 대비 6.29%(105.10포인트), 코스닥 150 현물지수가 108.85포인트 각각 급등하자 5분간 매수호가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6% 이상, 현물지수가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지수 급등에 ‘사이드카’ 발동

정부, 핵심 기술기업 활성화 성과
기관·외국인 총 3.2조 이상 매수

시장에서는 코스닥 강세를 정부 정책과 맞물린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지난 22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 달성안을 제안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고, 인공지능(AI)이나 우주, 에너지 같은 핵심 기술기업의 기업공개(IPO)는 활성화하는 등의 육성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벤처·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까지 더해지며 코스닥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코스닥 3000’ 발원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곳은 기관 투자자다. 이날 기관 투자자는 하루에만 2조6000억원 규모 코스닥 주식을 사들였다. 기관이 코스닥 주식을 하루에 2조원 넘게 사들인 것은 이례적이다. 외국인도 6000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조1000억원 규모 넘게 순매도했다.

연초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자동차 등 코스피 대형주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코스닥 내 비중이 높은 2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으로 매기가 쏠리는 ‘순환매’ 장세도 뚜렷하다.

/신하은 기자 godhe@

“약가제도 개편 ‘근본적 설계’ 위한 속도조절 필요”

정부, 내달 의결 7월 본격시행 예정
업계 “국민에 신뢰 얻는 정책 기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약가 인하의 속도 조절과 인하폭 조정 등 신중한 정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한지아·안상훈 국회의원 공동 주최

로 열린 ‘약가제도 개편안’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의결한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 비율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조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근

본적인 제도의 설계”라며 “쟁점을 차분히 점검하고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 충실 반영되어 성급한 제도 시행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참여 단체와 소속 기업이 연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시점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골든 타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산 신약 41개, 파이프라인 수 세계 3위 3233개, 기술수출 20조원 돌파 등 그간 축적한 성과와 신약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진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측은 “다만 이러한 성과에는 국산 전문의약품 매출이 기반이 되어왔고 이러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경쟁제한 우려”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

공정위 “렌터카 요금인상 우려
중소 경쟁사 퇴출도 예방한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전면 불허했다. 어피니티는 이미 SK렌터카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가 동일한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25일 “본 건 결합은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렌터카 요금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행태적 조치로는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금지라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병건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간 결합으로, 시장 구조상 영향

이 매우 큰 특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해 각각 심사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2024년 말 기준 내륙 29.3%, 제주 21.3%의 합산 점유율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1% 미만의 영세 중소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자금조달 능력, 브



랜드 인지도, 전국 영업망과 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 연계 등에서 중소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어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호한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합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 1개사 대 다수 영세 중소기업”이라는 양극화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가장 가까운 경쟁자 간 경쟁이 소멸되면서 가격 인상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경, 서울시의회 윤리위 하루 앞두고 사퇴… “처벌 달게 받겠다”
▲조국 “당정청 조율 더 신경 써야”…홍익표 “제3당 역할 중요”
/사진 뉴시스

▲김어준 ‘金총리 서울시장 여론조사 빼달라’ 요청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
▲與 “코스닥 1000 돌파 뜻깊은 성과…‘3000스닥’ 위한 제도 개혁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박근혜로 단식 종결…어떻게 비용 부담할 건가”
▲국힘 최고위서 ‘한동훈 지지’ 집회에 “적절한 조치 필요” 우려 나와

정부 “신규 원전 2기, 기존 계획대로 건설”

기후부 김성환 장관 언론설명회
“기존 원전의 경우도 유연운전 가능”

정부가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안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틀은 일정 수준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연내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11차 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 관련해 정책토론회 및 여론조사 등을 잇따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도 6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함께 발전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면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명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신규로 추진하는 원전은 물론, 기존 원전의 경우에도 안전 운전의 범위 내에서 유연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후부

했다.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을 비롯해,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수립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또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향후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 측 발표에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시민행동은 성명에서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현실성 및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돼 온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 온스당 5000달러 돌파

26일 서울 시내 금은방에 골드바와 실버바가 진열되어 있다.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다. 금값은 연초 이후 15% 올랐고, 1년 동안 누적 79% 급등했다. 안전자산인 금값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달러 자산 회피 등의 여파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쟁 환경 녹록지 않아… “민관 힘 모아야”

>> 1면 ‘60조 加 잠수함…’서 계속

CPSP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국책 사업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잠수함 건조 비용과 도입 이후 30년간의 MRO 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원팀’ 컨소시엄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경쟁 중이며 최종 사업자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민관이 총력 대응에 나섰음에도 경쟁 환경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

다. 캐나다가 비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독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이 캐나다와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라는 점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그룹 수장이 직접 현지를 찾는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며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힘을 모을 경우 캐나다 측과의 협의 진전과 수주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희 기자 wkh@

삼성·SK, 낸드 가격인상 예고 합산영업익 250조 ‘장밋빛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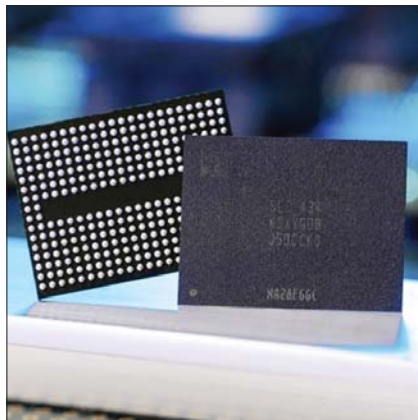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흐름 가팔라
AI 메모리 수요·생산량 감축 겹쳐
삼성·SK, 글로벌 점유율 60%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가격 인상을 예고해 메모리 업황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이어 낸드까지 실적 견인 축으로 부상하면서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2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을 전 분기 대비 100% 이상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주요 고객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상된 가격은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D램 가격을 최대 70% 가까이 올려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도 유사한 수준으로 낸드 가격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 증권가에서는 샌디스크 또한 올해 1분기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에 적용되는 낸드 가격을 100% 인상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 통해 올해 1분기 낸드플래시 공급업체들이 제품 계약 가격을 33~3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업계에서 전해지는 실제 공급 가격 인상 폭은



삼성전자의 QLC V9 낸드플래시. /삼성전자

이보다 더 큰 수준으로 낸드 시장의 가격 상승 흐름이 가팔르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AI 수요 급증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 제품 생산량 감축이 꼽힌다. 이에 스마트폰과 PC 등 소비자용 기기 가격에도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합산 점유율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CES 2026’에서 SSD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추론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ICMS)’라는 개념을 공개하면서 낸드 가격 상승세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CMS는 방대한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서 빼내 고용량 낸드플래시 SSD로 옮겨 저장하는 방식

이다. 특히 해당 기술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칩 ‘베라 루빈’에 적용될 경우 막대한 용량의 SSD 탑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ICMS를 이끄는 데이터처리 장치(DPU)의 수요 확대가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의 초고용량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라인업과 SK하이닉스의 ‘AI 낸드 퍼포먼스(AI-NP)’가 단순 저장장치를 넘어 DPU와 결합된 최첨단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황 CEO는 ICMS를 시작으로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가 CPU 등 제어 장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낸드플래시에 접근해 각종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의 ‘SCADA(GPU-SSD 직접 연결)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선두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련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ICMS와 SCADA 솔루션이 구현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며 “GPU 랙 한 대당 필요한 SSD 용량이 기존 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비트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소요되는 낸드 사용량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OCI홀딩스, ‘반도체·태양광’ 양날개 편다

日 등 글로벌 시설확장 가시화
실적 저점통과 국면 진입 해석도

OCI홀딩스가 반도체·태양광 양대 축에서 시설확장이 가시화되면서 사업실적도 저점 통과 국면에 진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말레이시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법인 출자 완료와 국내 공정용 인산 증설, 베트남 태양광 웨이퍼 상업 가동을 앞둔 흐름이 맞물리며 반도체 소재 확대와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이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최근 일본 도쿠아미와 설립한 합작법인 ‘OTSM’에 대한 최종 출자를 완료했다. 자회사 OCI테라서스는 총 1573억원(약 1억 875만달러)을 투자해 지분 50%를 확보했다. OTSM은 말레이시아 사리악주에 반도체용 고순도 폴리실리콘반제품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OCI는 현재 군산 공장에서 연간 4700톤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 중이며, 말레이시아 합작법인이 가동되면 오는 2029년부터 약 8000톤의 추가 생산능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용 인산 증설도 병행된다. OCI는 올해 상반기까지 인산 5000톤 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평택 P4 공장은 현재 양산 준비 단계이며, 기존 메모리·파운드리 라인의 가동을 회복과 고객사 재고 정상화 단계여서 반도체용 소재 수요가



OCI홀딩스 베트남 웨이퍼 공장 조감도.

/OCI홀딩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에 따라 OCI 베이직케미칼 부문이 지난해 4분기부터 판매량과 수익성이 회복 흐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OCI테라서스가 베트남 태양광 웨이퍼 공장에서 1분기 내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베트남 공장은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웨이퍼를 생산하는 구조로, 폴리실리콘-웨이퍼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PFE(금지와외국기관)배제 규정은 올해 과세연도부터 본격 적용 단계에 들어선다. 업계는 규제 강화 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웨이퍼 수요가 확대되며 OCI홀딩스의 동남아 생산거점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호재가 겹치고 있음에도 단기 실적은 공장 재가동 비용 부담에 발목이 잡

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말레이시아 테라서스 폴리실리콘 공장은 지난해 일시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에 들어갔다. 램프업 과정에서 비용이 예상보다 커 지난해 4분기까지 실적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올해 실적은 반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OCI홀딩스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4년 1015억원에서 지난해 -568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뒤 올해 3353억원, 2027년 4695억원으로 흑자 회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순도 11N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태양광용은 최대 10N 수준에 그쳐, 반도체용이 고부가·고진입장벽 소재로 평가된다”며 “태양광 공정을 경험한 기업이라도 반도체용으로 넘어오는 데는 기술적 허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제네릭 없이는 신약도 없다”… ‘건보재정 vs 제약생존’ 충돌

약가개편안 시행, 정부-업계 공방
제네릭 약가 인하, R&D 재원 논란
40%대 산정률 적용 ‘소급 인하’ 우려
실거래가제 부작용 추가 검증 요구

“제네릭 없이는 신약도 없습니다.”

약가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신약 개발을 위해선 제네릭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재정 절감이나, 산업 생존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 제네릭은 연구개발 ‘재원’

2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국민의힘 백종현·한지아·안상훈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업계와 정부의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다.

업계는 제네릭 매출이 없이는 신약 개발도 어렵다며 개편안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단일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 공급과 신약 개발을 모두 담당하는 국내 업계만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2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업과 신약 개발을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업계는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연구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산정률 인하는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등재 의약품 전반의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끌어내리는 방식이 ‘강제 소급 인하’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 3년간 가산 혜택을 주다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해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해야 할 시점에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이익 구간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공유한 시장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이 초기 마케팅, 시장 안착 등을 거쳐 시장 점유율 최고치에 도달하려면 평균 10년이 걸린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각각 60%, 40%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위험성도 경고했다.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협약력이 큰 병원이 제약사에 과도한 가격 인하 요구, 인센티브 독식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약이라도 병원 선택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게 된다”며 “결국 제약산업과 의료 현장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권 보장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충분한 검증으로 재설계 해야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을 통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권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 비용(cost)과 가격(price)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숫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약이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되도록 하는 ‘더 로우, 더 모어’ 방향성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업계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촉구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의 본질인 신약개발의 기본값은 실패”라며 “그 실패를 성장동력으로 최소 10년을 계획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중근당 대표는 “민관 협의를 통해 기업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설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예정 시간을 넘기며 이

어진 가운데, 청중들 사이에서도 정책 방향의 실효성을 묻는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들이 쏟아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경남 약사는 “약가 가산 기간을 1년에서 3년, 나아가 3년 플러스 알파로 확대하는 개편안은 오리지널사나 혁신형 제약기업 49개사, 상위 기업에 대한 우대가 더 강화되는 구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고가 처방과 오리지널 의약품 선호도가 높고, 특히 만료 이후 제네릭 시장이 오히려 커지는 처방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 재원을 신약이나 필수 의약품으로 이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가산 기간 조정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기 의식을 토대로 약가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며 “단순히 기존 절감 목표 중심의 제도 개편이 아닌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며, 신약이나 필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모두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국민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안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독점 공포’ 제동… 렌터카·중고차 ‘안도’

공정위, 어피니티 롯데렌탈 결합 불허
렌터카 “공통 탄생 막아 안도”
중고차 “공급 채널 다양성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인수를 불허하자 렌터카 업계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6일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회사 지분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결합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중소 렌터카 업체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결합이 승인될 경우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국내 렌터카 2위 사업자인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1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까지 소유하게 된다.



롯데렌터카 서울역 지점 전경.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내륙 지역에서 29.3%, 제주 지역에서 21.3%에 달했다. 반면 대부분의 경쟁사는 영세한 중소기업체로 개별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자금조달 능력

과 브랜드 인지도, 전국 영업망, 정보기술(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 네트워크 면에서도 중소기업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중소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1, 2위 기업의 결합으로 공통 기업이 탄생할 경우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통 기업이 등장할 경우 중소 렌터카 업체들과의 양극화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고차 업계는 “렌터카도 중고차 시장의 공급 채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는 렌터카 채널이 다양한 것이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열사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던 롯데그룹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대기업 불참에 판 바뀐 ‘독파모’ 스타트업 중심 경쟁구도 재편

대기업 “재도전 맨 신뢰도 타격” 고사
모티프·트릴리온 등 스타트업 출사표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추가 공모가 네이버, 카카오, KT 등 주요 대기업들의 잇따른 고사로 인해 스타트업 중심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내 AI 역량을 결집할 ‘정예팀’을 구성하려던 취지와 달리, 서바이벌 방식에 따른 브랜드 타격 우려와 까다로운 조건 탓에 체급 있는 플레이어들이 대거 이탈하며 프로젝트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1차 단계 평가에서 탈락했던 네이버 클라우드와 NC AI를 비롯해 지난해 고배를 마셨던 KT와 카카오 등 유력 후보군이 이번 추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특히 KT는 지난 23일 “자체 전략에 따라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대기업들이 재도전했다가 다시 탈락할 경우 직면할 기술력 신뢰도 하락과 ‘프롬 스크래치(기초 단계부터 개발)’ 논란 등 실익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건 ‘기존 정예팀(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과 대등한 수준이 아니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사실상 ‘패자부활전’의 문턱을 높여 놓은 상황에서 대

형 기업들이 굳이 불확실한 경쟁에 뛰어들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1차 단계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지켜본 대기업들 사이에서 재도전의 득보다 실이 많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이 또다시 평가대에 올랐다가 탈락할 경우 입게 될 부정적 이미지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면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 이번 공모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현재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 등 기술력을 강조하는 신예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들은 선정 시 제공되는 엔비디아 B200 GPU 768장과 고품질 데이터 지원을 발판 삼아 자체 모델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독자적인 기술론을 무기로 한 스타트업들이 채우면서, 이번 공모는 ‘체급 싸움’에서 ‘기술 잠재력 검증’의 장으로 성격이 급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국내 AI기업과 기관 중심 정예팀을 추가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1차 단계평가에서 5개팀 중 4개팀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네이버클라우드가 탈락하며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팀이 선정되면 전체 개발 일정을 조정해 내년 1분기 중 최종 2개 팀을 압축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결합 시 “유효 경쟁 급격히 약화”

>> 1면 ‘경쟁제한 우려…’서 계속

경제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소비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에서 SK렌터카 요금 인상 시 롯데렌탈로 이동하는 ‘재포획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단기 렌터카 요금의 10%대 인상 압력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주단기 렌터카 시장은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이나 증차가 제한돼

경쟁 여건이 더욱 경직돼 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최근 수년간 제주 지역 경쟁사의 차량을 흡수해 온 점을 들어, 결합 시 유효 경쟁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봤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로 최근 5년간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캐피탈사들이 존재하지만 롯데렌탈·SK렌터카의 유효한 경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캐피탈사들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본업비율 제한’으로 장기 렌터카 확대를 위해서는 리스 자산도 함께 늘려야 한다. 고금리 환경에서 리스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장기 렌터카 증차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이러한 규제 없이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까지 연계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가장 가까운 경쟁사 간 경쟁이 소멸되면 장기 렌터카 요금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성심당보다 경쟁력 없는 한계·부실기업… “지금 정리해야”

코스피 5000시대

저수익의 상장사들

연 매출 2000억원을 앞둔 빵집이 등장했지만, 국내 증시에는 그보다 수익성이 낮은 상장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오천피’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증시 호황에도 한계기업 퇴출 지연으로 인한 자본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창업 70주년을 맞이한 ‘성심당’은 국내 단일 빵집 중 최초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대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성심당의 2024년 매출은 1937억5900만원으로 2023년 1243억1500만원 대비 55.86% 증가했으며, 2020년 488억원보다 다섯 배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2023년 대비 51.79% 증가한 478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성심당의 인기는 지속됐다. 대전에는 성심당을 포함한 유명 빵집들을 즐기는 ‘빵 택시’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시장에서는 성심당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025년 매출이 2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빵집보다 못한 상장사

그렇다면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상장사들이 모여 있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성적표는 어떨까.

상당수의 국내 상장사들은 성심당보다도 낮은 수익성에 머물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나 컨센서스 추정 기관 3곳 이상이 실적 예상치를 제시한 국내 상장사 309곳(코스피 221곳·코스닥 88곳) 중 영업이익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83곳으로 전체의 26.86%를 차지한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국내 증시 내 한계기업’ 관련 이미지.

성심당, 지난해 매출 2000억 전망 달성 시 국내 단일 빵집 중 최초

영업익 500억 미만 기업 26.86% 2017년 이후로 한계기업 증가세

퇴출 고위험 기업, 실제 퇴출 적고 정상기업으로 대체 안돼… 투자 ↓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상장사도 코스피는 34.39%(76곳), 코스닥은 29.54%(26곳)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 중인 한국 증시 이면에는 다수의 한계기업들이 존재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한계기업의 규모는 지난 2024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낮아졌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2024년에는 17.1%까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기업의 생태계는 2016년을 전후로 위축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를 판단하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통상 3년 연속 1배 미만일 경우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구조조정은 더디다. 한국은행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라는 보고서를 보면 퇴출 고위험 기업은 2014~2019년 약 4%였지만 실제 퇴출된 기업은 2%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022~2024년에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이 3.8%였으나 실제 퇴출 기업 비중은 0.4%로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퇴출 고위험 기업이 제대로 정리되고 정상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웠다면 국내 투자는 2014~2019년 3.3%, 2022~2024년에는 2.8%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은 각 기간에 0.5%, 0.4%씩 늘었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난해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난해 명목 GDP가 2556조8574억원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조2274억원에서 최대 12조7843억원이 증가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는 퇴출 고위험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보다 투자를 현저히 적게 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나 퇴출이 원활했다면 상당한 투자 증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투자 증대는 직접 효과를 넘어 2차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한은은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증가가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 구조조정은 정상화 첫걸음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좀비기업(한계기업), 부실기업들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들에 대한 시장 내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도 영향 미미 경기부양책 전 기업 정리 선행돼야 무차별 지원 댄 시장 역동성 저하

기업 진입·퇴출로 경제 뒷받침해야 주력산업 규제완화·신산업 투자 촉진

금융당국에서도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비금융업종 기업 중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상장사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425개사로 나타났다. 코스피 기업은 83곳, 코스닥 기업은 342곳이다. 2019년에 처음으로 300곳을 넘어섰고, 이후 2024년에 최초로 400곳을 상회했다.

전문가들은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연명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더라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경쟁력 있는 기업들까지 필요한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전반적인 시장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려면 금융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5년간 신규 상장 수 증가율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3배 수준이지만, 신규 진입 대비 퇴출은 미미하다”며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률을 보인 지난해에도 상장사 절반 이상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이었다”고 짚었다. 시장 호황에도 비효율 기업이 정리되지 못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도 “장기간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에 기대 연명하면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과 한계기업 퇴출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성 정체와 대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위-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이견’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신속대응 필요 금융위, 인지수사권 부여 신중해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도 영향 줄 듯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범위와 역할을 두고 금융당국 간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회복과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개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인지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 조사에 국한한 기존 권한을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 감리, 민생 금융 범죄 등의 인지수사권으로 확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는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 금감원 “절름발이 특사경 납득 못해”

현재 특사경의 수사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제한돼 있다. 2019년에는 금융 사건을 전담하던 서울남부지방법찰청이 특사경 운영을 주도했고, 인력

구성도 금융위원장이 남부지검장에게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2022년 자본시장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 조직을 별도로 두고 인력을 확충하는 개편이 진행됐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특사경은 금융위·금감원·남부지검 소속 인력을 포함해 총 31명 규모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인지수사권 확대를 통해 민생 금융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위 이첩과 내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의 감독 규정으로 임의적으로 인지수사를 제한했다”며 “특사경에 인지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를 납득 못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는 “금감원에서 조사하고(금융위의) 프로세스를 거치면 대략 11주가 날아간다”며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금융위, 인지수사권 부여 신중

반면 금융위는 민간조직인 금감원에 중대범죄인 불공정거래 수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공권력 남용 우려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감독·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초 인지수사권이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 특사경에만 부여된 것은 공적인 수사업무의 특수성과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수사권이 부여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일본 금융청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해당논의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현재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공식화했으나 이후 조직개편안을 철회하면서 이 문제를 추후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30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난해 건설사 역성장… 올해 전망은 ‘맑음’

매출 전체적 감소, 영업이익은 개선 올해는 소형모듈원전 기대감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지난해 건설사 매출이 역성장 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원가율 안정과 함께 선별 수주 등 내실 다지기로 수익성은 개선됐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 DL이앤씨를 비롯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작년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건설사 전체적으로 매출은 일제히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건설사별로 온도차가 있지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작년 매출 추정치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30조7057억원이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4년 1조2634억원 적자에서 2025년 6386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다.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7조7028억원, 영업이익은 흑자인 1047억원으로 예상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연결 기준 2025년 매출액 전망치를 기존 30조3873억원에서 31조원으로, 신규 수주 규모를 31조1412

억원에서 33조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흑자전환은 기정 사실이지만 흑자폭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출과 수주는 늘었지만 영업이익 전망치는 작년 초 1조1828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현대건설은 “일부 플랜트 현장의 공기 지연에 따른 원가를 반영했고, 연결 중속회사의 본드몰에 따른 변동요인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주가는 작년 초 2만5450원에서 전일 기준 10만9200원으로 1년 만에 무려 4배 넘게 급등했다. 올해도 외형성장은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수익성 개선과 함께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40조414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감소의 주원인은 건설 부문이다. BNK투자증권은 작년 건설부문 매출이 13조36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봤다.

올해 전망은 밝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경쟁력을 입증한데다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신성장동력으로 확보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국민연금 과도한 기업 의결권 행사하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野, 의결권 행사 쟁점 토론회
“과도한 사기업 의결권 개입
자유시장 경제 무너뜨리는 것
지배구조 왜곡… 적기투자 불가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이 26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기업 의결권 개입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엔 유 원내수석 외에도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조배숙·나경원·곽규택·신동욱·김장겸·최수진·임종득·김은혜·박충권·이달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사진 촬영 후 자리에서 이석했다. 토론회에 끝까지 남은 의원은



(앞줄 왼쪽부터)심상달 카이스트 교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 수석부대표,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참가자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이달희·조배숙 의원 등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지적하고, 주요 대기업의 2~3대 주주로 자리잡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시대가 바뀌어

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 어쩌보면 관치금융시장을 선언했다고 할 정도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 와중에 국민연금이 시장에 관여할 때가 많다. 연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이용됐다는 것은 정부가 발

표하지 않았지만 공공연히 확인된 사실이다. 연금이 중요 기업들의 2~3대 주주가 되면서 조만간 시행될 집중투표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연금은 투자할 뿐이지 의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민연금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들에 일일히 의사를 방해한다면 연금이 모든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 또는 정권이 마음을 먹고 사기업의 의결권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는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126조를 들며 국민연금과 집중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헌법소원 제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나선 신도철 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의 위헌·위법성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경제단체는

의결권 행사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나선 정관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배구조의 왜곡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중요한 첨단산업은 적기투자가 불가능해진다”며 “나쁜 시나리오지만 외국계 악성 자본이 들어와서 이사회에 일부 영향을 주며 투자 시기만 1년 정도 늦춰나도 삼성전자가 시장경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지배구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사장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평가 방식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부사장은 “독일은 보험사 알리안츠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고 있다”며 “우등생들은 툴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는데 왜 우리는 (삼성생명법으로) 발목을 잡나.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故 이해찬 애도·추모 기간 지정

정쟁적 요소의 논평·발언 자제 요청
수석사무부총장에 최기상 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직 당직자로 수석사무부총장에 최기상 의원, 전략기획 위원장에 이연희 의원, 인재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인재위원장 간사에 박홍배 의원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해식 전 전략기획위원장 교체 사유를 묻는 질문에 “본인 개인의 사정으로 2~3주 전에 당 대표에게 사임을 표명했고,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이 임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과 관계 있다는 질문에 “매우 개인적 사정”이라며 “지방선거 관련인데, 본인이 출마한다거나 사정은 아니고 서울을 지원할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추모하기 위해 이번주를 애도 및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 등에게 애도 및 추모 기간 중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과 정쟁적 요소의 논평과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시도당별 추모 빈소를 설치하고 추모 현수막을 게첩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추모 기간 중 최소한의 당무만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29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여야 정쟁 요소가 있는 법안은 제외하고 합의된 민생법안만을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고인의 유해가 오는 27일 오전 6시40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하는 것에 맞춰 공항에 고인을 맞으러 갈 예정이다. 장례 기간 중 정 대표는 상주 역할을 하며 빈소를 지킬 예정이다.

최소한의 당무에 무엇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관한 당내 의견수렴 절차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다”며 “대부분의 절차들이 연기될 것이다. 다만, 기간 내 반드시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든가 실무적 당무가 진행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한미 통상마찰로 번지는 쿠팡사태

한국 정부 “차별 없다”… ‘강경 기조’ 유지

美측, 차별 대우 주장하며 조사 요청
“주가 하락해 막대한 손실 발생” 주장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이 길어지면서, 해당 문제가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번지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 측이 ‘한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와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차별 대우’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고 나선 이유는 쿠팡의 주가 하락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쿠팡의 주가는 정보유출 사태 이후 약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 및 정부 조사 등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꺾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유출 이슈에만 집중했으면 국제통상문제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쿠팡에 대해 12개 정부 부처가 나서 정보유출 사태 외에도 노동·세무·물류·공정거래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할 만한 빌미를 줬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쿠팡을 조사하겠다는



12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차고지 모습. /뉴시스

의지를 꺾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여한 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관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JD백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쿠팡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 이에 앞서 22일엔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만났을 때도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지아 사태에서 억류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인종·국적 차별’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자, 한국 역시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국적과는 상관 없이,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날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쿠팡에 대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권봉관·쿠팡 상설특검 역시 이날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은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검사들에게 검찰 수뇌부가 무혐의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쿠팡 측의 주장이 억지라고 보고 있다. 노동·세무 등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촉발된 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김남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식을 연다. TF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다룰 별도 조직이다. 정부에 이어 여당도 쿠팡의 문제를 살살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은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기업영업 확대 ‘본업 집중’… 소비자 권익 보호의 원년 선포

2026 카드사 생존전략

우리카드

기업영업본부 정주영 상무 선임
법인카드 성장률 반등 전략 관측

모든 경영서 ‘소비자 보호’ 최우선
내부통제·사전협의 체계 고도화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은 올해 신년사 대신 사내 경영 키워드를 제시하며 수익 안정성 확보·본질에 집중한 경쟁력 강화·지속 성장 모델 확립 등을 주문했다. 내실 경영을 중심으로 기초체력을 키운 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신년사 생략·인사 규모 최소화

우리카드는 올해 신년사를 생략했다. 지난해에는 진 사장이 신임 대표로 취임하면서 한 해 경영 방향성을 대외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별도 신년사를 내놓지 않았다. 인사 규모도 최소화했다. 지난해 초 신규 임원은 5명이었으나 올해는 2명에 그쳤다.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 /우리카드

당면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3분기까지 우리카드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0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감소했다. 연체율 감소를 위해 대손상각비를 늘린 점이 순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대손상각비는 38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 기업영업 확대…본업 경쟁력 강화

우리카드는 대표적으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2026년을 전환점의 해로 삼

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인 전략으로 거론되는 것이 기업영업 확대다. 우리카드는 이번 인사에서 기업영업본부에 정주영 상무대우를 신규 임원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신년 인사에 마케팅본부, 개인영업본부, 리스크관리본부, 소비자보호본부 등을 중심으로 신규 임원을 배치한 것과는 또 다른 행보다.

일각에서는 우리카드가 법인카드 성장률 둔화에 대응해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카드는 지난 2024년 법인카드 점유율이 16.5%로, KB국민카드(16.8%)의 뒤를 이어 업계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5년 점유율이 14.7%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가 법인카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우리카드 법인카드 점유율은 업계 2위에서 5위로 밀려났다.

실제 우리카드는 기업고객이 항공권, 호텔 등 출장 관련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즈플레이출장권 시어지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기업 고객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긴급 발권, 일정 변경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고객센터(CS) 서비스도 제공한다.

◆ 고객중심 경영 강화

우리카드는 올해 소비자 중심 경영 기조를 분명히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현장’을 선포하고, 올해를 소비자 권익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취지다.

특히, 우리카드는 고객의 필요와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판매 원칙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사전 협의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가이드라인도 구축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현장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업무 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 기준”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카드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 수단 추가

삼성생명은 26일 기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더해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추가 도입했다.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보험 업무 처리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고객은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계약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모바일과 온라인 채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증 단계에서의 제약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이용 흐름 역시 매끄러워졌다.

보안성도 함께 강화됐다. 이번에 도입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돼 위변조 위험을 낮췄다.

한화손해보험

취준생 ‘취업캠프’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취업 준비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첫 걸음을 위한 ‘취업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 유일의 실전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취업 전문가·현직자·인사 담당자가 총출동한다. 캠프 참여가 실제 채용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한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에게는 한화손보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지원 분야는 ‘페멘테크(Femtech)’와 ‘사이버보험’이다. 취업캠프는 오는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총주수 인보에 위치한 한화손해보험 라이프캠퍼스에서 집중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구분옥 KB손해보험 사장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KB손해보험은 지난 2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KB손해보험 인재니움수원에서 구분옥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사장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분옥 사장은 올해 새롭게 선임된 임원 및 부사장에게 새해 인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며 ‘명작(名作)’의 완성을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분옥 사장은 보험업계가 당면한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정교한 수익성 관리’와 ‘AI 기반 실질적 성과 창출’을 꼽았다.

/김주형 기자 gh471@

고정형 주담대 상단 7% 눈앞… 예대금리차 확대

은행 고정형 주담대금리 0.51%p ↑
3%대로 올랐던 예대금리 하락세
5대은행 가게 예대금리차 1.35%p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선을 바라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예대금리차가 커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현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2~6.72%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지난 15일(연 3.91~6.21%)과 비교하면 하단은 0.21%p포인트(p) 내렸지만 상단은 0.51%p 올랐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65~6.05%로 최고 6%를 넘어섰다. 지난 15일(연 3.76~5.87%)과 비교하면 상단이 0.18%p 상승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이



채권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후반대까지 상승했다. /뉴시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 AAA) 금리는 23일 기준 3.675%로 지난 15일(3.579%)과 비교하면 0.096%p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도 11월 2.81%에서 12월 2.89%로 0.08%

p 상승했다.

반면 예대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3%대까지 올랐던 예대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마이플러스 정기예금’(1년 만기) 최고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3.1%에서 이달 2.9%로 내렸고,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금리도 2.85%에서 2.80%로 하락했다.

연초 은행채 채권금리 하락에 따라 대체 조달수단 격인 정기예금 금리도 내려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는 일시적인 변화라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는 성과급 지급과 기업자금 재유입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라며 현재로서는 비용을 들여 정기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속에 예대금리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게예대금리차는 1.35%p로 집계됐다. 2년전 기록한 0.74%p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약 두 배 수준이다.

은행권은대출금리가당분간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대출 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2월 아파트 입주물량 1.2만세대… 수도권·지방 모두 감소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낮은 수준
수도권 5192세대, 지방 7156세대

오는 2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대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월 입주물량은 1만2348세대로 집계됐다. 전월(2만1136세대)보다 9000세대 안팎으로 줄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6000세대 이상 감소했다. 월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5192세대, 지방이 7156세대 입주한다. 1월 대단지 입주가 집중됐던 수도권은 2월 들어 공급이 쉬어가는 분위기다. 지방 역시 경남,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지만 전월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세부 지역별로 서울은 일부 자치구에서 소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작구 상도동의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370세대), 마포구 용강동의 마포하늘채더리버(69세대), 송

파구 거여동 힐트리움송파(44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모두 중소형 규모 단지인 만큼 이번 입주물량 공급으로 지역 전반의 공급 여건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해당 지역 내 국지적인 수요를 흡수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화성·파주·이천·수원 권선구 등 일부 지역에서 총 3853세대, 5개 단지가 입주한다. 전월 및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1103세대가, 파주 운정신도시 물향기마을10단지운정중앙역하우스디 1012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은 검단신도시에서 검단호수공원역호반써밋 856세대가 입주한다. 2021년부터 입주가 진행된 검단신도는 지난 해 3942세대에 이어 올해 6938세대가 추가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체 입주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방은 총 7156세대, 1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경남2144세대 ▲충남2041세대 ▲대구1376세대 ▲대전1029세대 ▲전북298세대 ▲부산268세대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최태원 “반도체 임팩트는 서곡… AI, 기업 성패 기준될 것”

〈SK그룹 회장〉

플랫폼 9와3/4 ‘슈퍼 모멘텀’ 발간 표지 앞뒷면 HBM 디자인 형상화 최 회장, SK하이닉스 스토리 담아

“고대역폭메모리(HBM) 스토리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다.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한 SK하이닉스의 성공과 AI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출판사 플랫폼 9와3/4이 발간한 신간 ‘슈퍼 모멘텀’(부제: SK하이닉스의 언더독 스토리)에서 만난 2위 기업이 1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무(無)에서 시작한 원천 기술을 20년에 걸쳐 쌓아 올린 피, 땀, 침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 책은 시총 545조 원, 영업이익 44조 원. AI 물결의 주인공으로 등극한 SK하이닉스의 HBM 개발사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리더십을 조명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HBM은 국가



슈퍼 모멘텀 표지.

/플랫폼 9와3/4

전략 자산이 됐고, 전 세계 인프라 설계에서 발언권을 부여하는 대외 협상력의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 또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기업의 결정과 리더십이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AI 패권 시대다. 하이닉스의 2025년은 수십 년간 축적된 전략과 집념이 AI라는 슈퍼 모멘텀을 만나 기세로 분

출된 시기다.

최근 2~3년, 시대 전환을 이끈 테크·AI 기업을 집중 연구하던 저자들은 결정적인 AI 병목을 해결한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주목했다.

이 책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HBM 독심’이 노트(인터뷰) 형식으로 정리됐다. 특히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최초의 시제품인 ‘HBM0’, HBM2의 실패와 리디자인한 ‘HBM2 제2’ 등 SK하이닉스의 개발 역사를 들여볼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AMD가 ‘언더독 동맹’을 결성하고 세계 최초의 HBM을 완성한 스토리부터,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주도권을 잡은 발판이 됐던 ‘SK하이닉스-엔비디아-TSMC’의 삼각동맹까지의 서사도 담겼다.

최 회장은 책에서 “2021년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CEO를 처음 만났을 때 ‘AI 비전’에 확신을 가졌다”고 회고한다. 특히 SK하이닉스가 HBM3부터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고 전략적 동맹을 통해 서로를 성장시켰다. 두

회장의 ‘하드코어 협업’이 없었다면 2023년 이후 AI 스케일업은 지금 같은 속도로 폭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태원 회장은 책에서 “지금까지 AI 반도체가 만든 임팩트는 서곡에 불과하다”며 “기술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AI 생태계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기업의 가치와 운명 등 모든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책 표지 앞뒷면에는 실재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HBM 디자인이 형상화돼 있다. 손톱만 한 공간에 최대 16단을 쌓아 올린 구조도를 상상하면 AI 시대의 문을 연 기술의 집적도를 체감할 수 있다. 이 책은 ▲1장 ‘더 베틀(The Bet) 승부수, 판을 바꾸다’ ▲2장 ‘더 빌드(The Build) 집념을 쌓아 벽을 넘다’ ▲3장 ‘더 피벗(The Pivot) 다시 큰 꿈을 그리다’ ▲마지막 ‘최태원 노트: 우리는 길목에서 있었다’ 순으로 정리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이 27일 국내 출시한 AI PC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 ‘갤럭시 북6 시리즈’ 출시

삼성전자가 성능부터 디자인, AI 사용성 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AI PC 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를 오는 27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갤럭시 북6 시리즈’는 더욱 얇아진 두께부터 로고 위치, 키보드, 탭터치패드 등 전반적인 디자인 요소가 새롭게 재구성됐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3’를 탑재해 전력 효율과 처리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 최대 50 TOPS(초당 최고 50조 회 연산)의 성능을 갖춘 신경망 처리 장치(NPU)는 이미지 편집, 텍스트 변환, 검색 등 AI 기반 작업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전작 대비 2배 수준인 최대 1000니트 HDR 밝기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

‘갤럭시 북6 울트라’는 40.6cm(16형) 단일 사이즈,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북6 프로’는 40.6cm(16형)과 35.6cm(14형) 두 가지 사이즈로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셀토스 완전변경… 소형 SUV 시장 ‘HEV’ 승부수

〈하이브리드〉

이전 세대 대비 전장·전폭 확장 HEV 모델 추가 등 상품성 개선

기아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부문 절대 강자인 셀토스의 완전 변경 모델을 7년 만에 국내 출시했다. 특히 2세대 셀토스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디 올 뉴 셀토스’ 미디어 이벤트를 개최하고 오는 27일부터 국내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셀토스는 2019년 1세대 모델 출시와 함께 압도적인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33만대 이상 판매되며 소형 SUV 시장에서 최고 인기 모델로 자리잡았다. 출시 후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아는 신형 셀토스 출시로 올해 국내에서 5만5000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같은 자신감은 2세대 셀토스의 탄



지난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미디어데이에서 소형 SUV ‘디 올 뉴 셀토스’ 차량이 전시돼 있다. /양성운 기자

탄한 기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셀토스는 소형 SUV임에도 넉넉한 실내 공간 제공한다. 기존 모델 대비 전장을 40mm, 휠베이스를 60mm, 전폭을 30mm 확장했다. 제원은 전장 4430mm, 휠베이스 2690mm, 전폭 1830mm, 전고 1600mm다. 실제 차량에 탑승하면 실내 공간이 넓어졌음을 체감할 수 있다.

또 새롭게 추가된 하이브리드(HEV)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1.6하이브리드와 1.6가솔린 총 2개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전방 교통 흐름 등 주행 상황에 따라 최적의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을 적용해 주행 중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한다.

2세대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솔린 터보 모델의 최대 복합연비는 각각

리터당 19.5km, 12.5km이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1.6가솔린 터보 모델은 2477만~3217만원, 1.6하이브리드 모델은 2898만~3584만원이다. 가솔린 모델 기준 1세대 대비 200만원 가량 인상됐다.

손용준 국내상품 1팀장은 “플랫폼과 디자인 변경에 각종 사양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인상됐다”며 “경쟁차 대비해 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셀토스는 27일부터 계약을 개시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차량을 출고하고 고객에게 인도할 계획이다.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은 “고객들은 그동안 셀토스에 더 효율적인 연비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더 넓은 공간을 요청했고 디 올 뉴 셀토스는 그 지점에서 출발했다”며 “강인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 탁월한 연비 효율성을 담아낸 셀토스로 소형 SUV 시장을 지속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대한항공, 군집 AI 등 무인기 기술 개발 박차

파블로항공 투자… 안정적 성장 지원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 협력 강화”

대한항공이 국내 드론 전문 기업 파블로항공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인기 사업 핵심기술 확보와 시장 지배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지난 23일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파블로항공과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파블로항공은 차세대 드론 운용의 핵심인 군집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군집 AI는 새가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드론이 군집을 이뤄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파블로항공은 총 5단계인 군집 조율 기술 가운데 국내 최초로 4단계 진입에 성공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한항공은 미래 중추 사업인 항공 우주 분야의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단행했다. 대한항공 중대형 무인기에 파블로항공의 군집 AI 자율 비행 알고리즘, 통합 관제 플랫폼, 중소형 무인기 개발 역량 등을 접목한다.

이를 통해 방산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단순 자금 조달을 넘어 파블로항공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 인프라와 벤처기업 혁신 기술을 융합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은 파블로항공과 군집 비행 공동 연구개발(R&D)은 물론 신규 사업 모델도 발굴한다. 또 무인기 기술과 사업 노하우를 교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역량 있는 중소·벤



지난 23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임진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왼쪽)과 김영준 파블로항공 의장이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처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기술 혁신과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차현정 기자

삼성 스마트공장 참여 中企, 대출이자·보증료 확 줄인다

중기중앙회·삼성·우리銀·기보 협약
스마트공장 참여中企 금융지원 확대
우리銀 20억 특별출연, 판로지원
기보 1100억 보증·융자 지원나서
보증료율 1.3%p, 대출이자 2.2%p↓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참여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빌린 운전자금 등 대출이자와 보증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삼성전자,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과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중기중앙회가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료 및 대출이자 인하 등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이고 대·중소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삼성·포스코가 추진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 중소기업 246개사를 대상으

로 만족도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0.3%가 '만족(매우 만족 포함)'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은 0.4%에 그쳤다. 구축 솔루션에 대해서도 82.1%가 '만족'을 표했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업 규모가 커 운전·시설자금 대출이 많은 경우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보증료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 단계에 대해 지원받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7억원 정도를 대출받은터라 매년 1000만원 이상의 보증료가 발생해 보증료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기보로부터 특허 보증 한도도 최대까지 받은 상태여서 추가 보증한도까지 주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20억원을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기보는 1100억원의 보증료와 융자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 시 기보의 보증료율을 1.3%p(우리은행 1.0%p, 기보 0.3%p) 저렴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이자 2.2%p 인하 혜택도 받는다.

시설자금을 5억원 대출받았다면 2년간 보증료와 이자 인하 혜택을 포함해 기업은 총 3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보증료 및 융자 지원 외에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 등 판로 지원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기보는 기술보증서 발급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담보력을 강화한다.

또 중기중앙회와 삼성전자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운영을 통

해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 단계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을 지속하고,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 내용 홍보 및 대상기업 확인 등을 통해 협력한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자금의 소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협약 또는 다른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의 새로운 상생금융 모델"이라면서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위해 4개 기업과 기관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판로 개척·마케팅에 142억 투입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AI 마케팅 등 2050개사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올해 141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하고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실시하는 지원사업에선 ▲온라인 판로지원(300개사) ▲오프라인 판로지원(300개사)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운영(1200개사)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250개사)을 중심으로 총 2050개사를 1년간 돕는다.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전문 상품기획자(MD)가 중소기업의 주요 e커머스 플랫폼 및 홈쇼핑 입점을 돕는다. 대형 유통망을 통한 기획전, 팝업 스토어 개최는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뒷받침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업박람회와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열고 바이어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백화점 등 7곳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전용 제품 판매장 설치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유통망 대비 절반 이상의 낮은 판매 수수료율과 전담 판매 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인천공항에 있는 정책면세점은

화장품, 패션, 라이프, 푸드를 중심으로 한 '4대 K-수출전략품목' 중심의 테스트 베드로 개편한다.

올해 새로 도입하는 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전략 수립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핵심 서비스를 '메뉴판식'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참여 기업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KCC실리콘, 뷰티 소재로 글로벌 시장 도전

인도 뭄바이서 'HPCI India' 참가

KCC실리콘이 뷰티 소재 경쟁력을 글로벌 기업들에게 알리며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KCC실리콘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인도 뭄바이 지오 월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HPCI India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실리콘 기반 뷰티 소재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HPCI India'는 인도 및 글로벌 뷰티·생활용품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 혁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표 전시회로, 매년 2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가한다.

KCC실리콘은 전시회를 통해 감각적인 사용감과 기능성을 동시에 구현한 스페셜티(특화 기능)를 갖춘 고부가가치 소재) 실리콘 라인을 선보이고, 제형 완성도와 차별화된 사용 경험을 제안함으로써 KCC실리콘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글로벌 고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인도는 거대 인구를 기반으로 SNS사



KCC실리콘(KCC 뷰티)이 지난해 HPCI India 전시회에 참가해 마련한 부스 전경.

용자 확산, 젊은 소비자 층 확대 등 뷰티·퍼스널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KCC실리콘은 인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발판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KCC실리콘 관계자는 "이번 HPCI India 2026은 단순한 제품 홍보의 장이 아닌 글로벌 뷰티 시장과 KCC실리콘의 기술 철학을 직접 연결하는 무대"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현대제철

CDP 평가 '리더십 A-'

국내 철강사 중 유일 최고등급

현대제철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국내 철강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2025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국내 철강사 중 유일하게 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

CDP는 글로벌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환경경영 정보를 분석하는 국제 비영리기구로, 매년 기후변화 대응·수자원 관리 분야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현대제철이 받은 '리더십 A-'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와 실행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현대제철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분석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향됐다.

/유혜은 기자 dhale@

소진공, '립스 프로그램' 민간운영사 모집

유망 소상공인 발굴·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공)이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립스(LIPS)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운영사를 오는 2월6일까지 모집한다.

26일 소진공에 따르면 '립스(LIPS) 프로그램'은 유망 소상공인에게 신제품 개발 및 사업 고도화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육성사업으로, 민간투자연계형 매칭투자자(LIPS I)와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LIPS II)으로 나뉜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자가 먼저 투자할 경우 립스 I은 투자금의 최대 5배(5억원 한도)까지 정책자금을, 립스 II는 투자금의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자금을 각각 매칭 지원한다.

민간 운영사 모집 대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재원 및 투자 실적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투자전문기관으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기술

지주사 등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민간 운영사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추진 ▲소상공인 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소상공인 성과관리·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립스 프로그램 민간운영사 모집 관련 세부 신청 요건,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누리집과 소상공인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립스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이 단순 생계형을 넘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진공은 립스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포티투닷, 자율주행 '아트리아 AI' 고도화

경력 개발자 50여명 채용

현대차그룹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자율주행 기술 '아트리아 AI'를 고도화하기 위해 경력 개발자 50여명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채용 직무는 10여개 분야로 머신러닝(ML) 플랫폼, 인공지능(AI), 퍼지컬 AI, 시각·언어·행동(VLA), 보안 등 자율주행 기술 전반에 걸쳐있다. 최소 3년부터 최대 20년의 전문 경력을 보유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연구를 넘어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어 석·박사 과정 연구원 경력의 입사자들은 연구 실증과 커리어 확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포티투닷은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

밸리에 자율주행 개발 인프라와 연구개발 차량을 갖추고 실제 도로 환경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포티투닷에는 총 800여명의 임직원이 한국, 미국, 폴란드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중 70%가량이 개발 직군이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티투닷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포티투닷이 새 리더십 체제에서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엔비디아, 테슬라 출신의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인 박민우 박사를 포티투닷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양성운 기자 ysw@

Where Real NONSAN STRAWBERRIES Shine⁺



논산 생딸기
바나나라떼⁺

Nonsan Fresh Strawberry
Banana Latte

논산 생딸기볼⁺

Nonsan Fresh Strawberry Bowl

논산 생딸기주스⁺

Nonsan Fresh
Strawberry Juice

생딸기 바나나
푸딩케이크⁺

Fresh Strawberry
Banana Pudding Cake

‘독자 AI 탈락’ 네이버, C레벨 체제 ‘온서비스 AI’로 돌파

기존 최수연 대표 포함 6인 리더
글로벌 경쟁환경 대응 조직개편
버티컬 서비스에 AI 에이전트 구현
조직·운영까지 전사적 AI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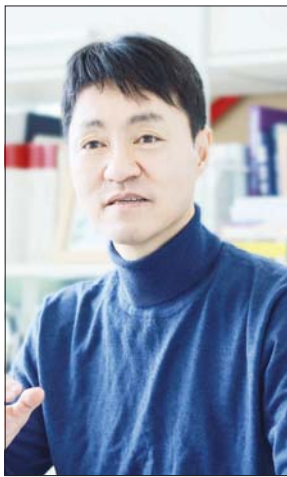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사업 탈락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든 네이버가 조직 개편 카드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최수연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여섯 명의 C레벨 리더십을 전격 가동함으로써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서비스 전반의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내달 1일자로 ▲김광현 최고데이터·콘텐츠책임자(CDO) ▲유봉석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 ▲황순배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새로 선임한다. 기존 최수연 대표(CEO)와 김범준 최고운영책임자(COO), 김희철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더해 C레벨 리더는 총 6명으로 확대된다.

해외 사업은 김남선 전략투자부문 대표(북미), 채선주 전략사업 대표(사우디아라비아),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대표



김광현
최고데이터·콘텐츠책임자(CDO)



유봉석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



황순배
최고인사책임자(CHRO)

(인도·남유럽)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맞는다. 글로벌 확장과 투자, 현지 사업을 분담하는 구조다.

◆다시 힘 실린 C레벨 리더십

네이버가 C레벨 체제를 본격적으로 재정비한 것은 최수연 대표가 취임한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회사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주요 CXO들이 잇따라 물러나며 리더십 공백을 겪었다. 당시 이사회는 급격히 커진 조직과 복잡해진 사업 구조가 기존 리더십의

부담을 넘었다고 진단했다.

최 대표는 취임 초기 김남선 전략투자 부문 대표와 투톱 체제를 꾸렸고, 2024년 초 김범준 전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COO로 영입하며 운영 부담을 분산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해 경영의 무게추를 더했다. 연임에도 성공하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듯했다.

하지만 병오년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

델’ 프로젝트에서 조기 탈락하며 상징적 타격을 입었다. 자체 개발을 강조했지만 중국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AI 모델 ‘큐웬’의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를 AI가 인식하도록 수치화하는 핵심 구성 요소이고, 가중치는 학습 결과를 담은 판단의 기준이다.

네이버는 검증된 외부 인코더 채택이 호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중치를 초기화해 학습하는 것이 독자 모델의 기본 조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온서비스 AI’ 확산에 총력

아쉬운 성적표에도 네이버는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C레벨 재편은 AI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최 대표도 최근 사내 소통 자리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전열 재정비를 강조했다.

핵심은 서비스 전반에 AI를 녹여내는 ‘온서비스 AI’ 전략이다. 김광현 CDO는 검색, 광고, 로컬, 쇼핑 등 주요 버티

컬 서비스 전반에 AI 에이전트 경험을 구현하는 중책을 맡는다. 이용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주력 검색 서비스에서는 이미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도입한 ‘AI 브리핑’은 단순 결과 나열을 넘어 개인화된 콘텐츠와 여행·쇼핑 정보를 추천하며 체류 시간과 클릭률을 끌어올렸다. 웹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 기준으로 네이버는 2025년 검색 점유율 62.86%를 기록해 구글(29.55%)과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3년 만에 60%대 점유율을 회복한 셈이다.

황순배 CHRO는 AI 시대에 맞춘 조직 구조와 인재 전략을, 유봉석 CRO는 전사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총괄한다. 기술과 서비스뿐 아니라 조직과 운영까지 AI 전환을 전사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네이버 관계자는 “C레벨 리더십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 아래 사업과 기술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AI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 새 학기 앞둔 학생·학부모 위한 혜택

‘아이러브 ZEM 새 학기 페스티벌’
오는 3월 31일까지 경품행사 진행
ZEM 앱 만 15세까지 사용연령 확대

SK텔레콤은 2026년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고객을 위한 혜택을 모은 ‘아이러브 ZEM(젬) 새 학기 페스티벌’을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ZEM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단말과 요금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ZEM 앱을 통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새 학기 시즌을 맞아 ZEM 앱의 사용 가능 연령을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는 중학생, 만 15세까지 확대했다.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는 ZEM 앱 신규 가입 고객과 자녀 스마트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를 비롯해 ZEM 앱·단말 리뷰 이벤트, T다이렉트 삼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함께 진행된다.

먼저 ZEM 부모 앱에 새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경품 이벤트가 열린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가전제품, 모바일 상품권, 스마트 태그, 기프트



SK텔레콤은 2026년 새 학기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한데 모은 ‘아이러브 ZEM 새 학기 페스티벌’을 오늘(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SKT

카드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녀에게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가족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ZEM 앱 이용 고객이 최근 출시된 갤럭시 또는 아이폰 시리즈를 구매하면 응모할 수 있으며 태블릿, 헤드폰, 스마트워치, 모바일 금액권 등 경품이 마련돼 있다.

ZEM 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리뷰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공식 체험단으로 선정된 참여자가 ZEM 앱 사용 후기를 개인 SNS에 게시하면 상품권이 제

공되며, 우수 리뷰어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T다이렉트샵에서는 자녀 스마트폰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기획전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플렛 이벤트를 통한 단말 할인권 제공과 스마트폰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이 포함된다. 기존 스마트폰으로 유심 또는 이심을 개통해 ZEM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을 하는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일정 기간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마련됐다. /김서현 기자 seoh@

네이버, 건강검진표 등 전자문서 범위 확대

행정비용, 분실·지연 문제 ↓

네이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표와 각종 안내문을 네이버 전자문서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이 우편 중심이던 건강검진 안내를 디지털로 전환해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용자는 네이버 앱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함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 여부, 검진 결과지, 검진 일정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열람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했다. 문서는 암호화 저장되며, 열람이력 관리도 가능하다.

공단은 그동안 연간 수천만 건의 건강

검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왔다. 이번 전자문서 도입으로 행정 비용 절감과 함께 분실·지연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는 전자문서 서비스 범위를 공공·금융·생활 영역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사례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접근성과 사용자 경험을, 공단은 공공 신뢰성과 데이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그룹-4대 과기원, AI 인재 키운다

AI 인재육성 프로젝트 결선·시상식

카카오그룹이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함께 추진한 AI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카카오는 26일 산학 협력을 통해 실전형 인공지능(AI) 인재를 발굴하고,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KAIST, GIST, DGIST, UNIST 등 4대 과기원이 참여했다. 각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카카오현업 조직이 제시한 실제 문제를 주제로 AI 솔루션을 개발했다.

결선에서는 생성형 AI, 추천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카카오는 기술 완성도뿐 아니라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문제 해결 과정 전반을 종합 평가해 수상 팀을 선정했다.

카카오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장기 협력 모델로 확장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에게는 인턴십 및 채용 연계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 연구 과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룹 전반의 AI 기술 내재화를 위한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이 목표다. /최빛나 기자



지난 25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치지직 파트너스 데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치지직 “스트리머·시청자와 동반성장”

오픈 2주년… 중장기 로드맵 공개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오픈 2주년을 맞아 서비스 성과와 함께 2026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단순 중계 플랫폼을 넘어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치지직은 2024년 1월 베타 서비스를 거쳐 정식 출범한 이후 게임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용자를 확대해 왔다.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치지직은 스트리머 수와 누적 시청 시간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내 대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네이버 로그인 기반의 접근성과 채팅·후원 구조의 단순화가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다.

2주년을 맞아 네이버는 2026년까지의 서비스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핵심은 스트리머 수익 구조 다변화와 시청 경험 고도화다. 광고·후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멤버십, 굿즈 연계, IP 협업 등 수익 모델을 확장하고, AI 추천을 활용한 개인화 콘텐츠 노출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천스닥 시대 맞았지만… 개미 매도 러시, 구조적 한계 숙제

W 천스닥

① 한국판 나스닥 열릴까

정책 모멘텀에 ‘천스닥’ 기록
매력적인 주도주 마땅히 없어
기업 머물 인센티브 정책 필요

“코스피를 보면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자영업자 이용현(55)씨는 “코스닥은 도대체 ‘장투’ (장기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며 지난주부터 사흘동안 코스닥 종목에 투자했던 주식 4300만원어치를 전량 매도했고 털어냈다. 26일 코스닥 지수가 900선을 넘어 ‘천스닥’ (코스닥 1000)을 기록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커보인다는 것이다.

천스닥 시대가 열렸지만, 개미들은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이날 ‘코스닥 개미’ 들은 3조1000억원어치를 팔았다. 2거래일 동안 4조원 넘게 팔았다.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와 ‘코스피의 2부 리그’라는 인식이 코스닥의 구조적 상승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외에도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머물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코스닥 2부리그 한계 벗어날까

코스피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코스닥엔 주로 바이오, 중소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기업들이 상장돼 있다. 코



ChatGPT로 생성한 ‘코스닥지수 상승을 기대하는 개미(개인 투자자)들’ 이미지.

스닥 시장 상장 문턱이 코스피보다 비교적 낮다 보니 이날 기준 코스닥엔 1826개 종목이, 코스피엔 952개 종목이 상장돼 있다.

최근 투자업계에서는 ‘코스닥 정상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코스닥 3000 돌파를 다음 목표로 제안했다.

‘왕개미’ 출신을 자처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이 ‘코스닥 3000’ 이슈를 꺼내든 이유로는 코스닥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점이 꼽힌다. 26일 기준 코스피는 올해 들어 17.45% 올랐으나 코스닥은 15.01%상승했다. 코스닥 이슈가 나온 후 최근 3거래일 동안 11.89% 오른 영향이다.

그동안 코스닥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투자할 종목이 마땅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코스

닥 상장사들이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면 코스피 시장으로 ‘등지를 옮기는’ 일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코웨이, 포스코DX 등은 모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다. 현재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도 코스피로 옮길 예정이다.

이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구글,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뉴욕 증시를 주도하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M7)’이 모두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아닌 나스닥에 상장된 것과는 대조된다. 코스닥은 본래 기술 중심의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는 1996년 출범했다. 하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한국의 나스닥’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피는 반도체나 지주사, 금융, 조선, 방산, 원자력 등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반면에 코스

닥은 매력적인 주도주가 마땅히 없다”며 “큰돈을 장기간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으니 주가가 꾸준히 오르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2000년 ‘닷컴 버블’ 사태로 코스닥이 폭락했던 기억도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꺼리는 요인이다. 1999년 초에는 700선이었던 코스닥이 이듬해 3월 단숨에 역대 최고점인 2834.40까지 치고 올랐던 적이 있다. 인터넷이 급속 보급되면서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던 때다. 수많은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완화된 요건 덕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그렇지만 닷컴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 나스닥과 함께 코스닥도 급락했다. 2000년 말에는 코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약 80% 하락한 수준인 500선으로 가라앉았다. 이 당시 경험으로 ‘코스닥은 투기장’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외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80%에 달한다.

◆정부 ‘3000’ 립서비스에 그칠까

코스닥 정상화의 해법을 두고 상장사 사후관리 강화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공시는 제대로 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부실기업을 빠르게 퇴출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고, 인공지능(AI)이나 우주, 에너지 같은 핵심 기술기업의 기업공개(IPO)는 활성화하는 등의 육성 방안을 추진 중

이다. 이밖에 벤처기업과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등도 코스닥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자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코스닥 벤처 투자는 인공지능(AI),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부실 기업의 상장폐지 강화와 상법 개정, 공개매수 관련 법안 통과는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정부가 ‘코스피 5000 정책’에 이어 코스닥과 비상장시장으로 머니무브 정책을 이어가면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계절성에서도 1월, 2월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지수가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하는 편이며, 하반기에는 상대적 약세를 반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코스피 5000선과 코스닥 1000선의 주요 지수대에 도달함에 따라 심리적 저항에 따른 과열해소와 매물 소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투자자들과 상장사들이 코스닥에 머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코스닥을 떠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코스닥의 체질이 금방 개선될 문제는 아니지만 바뀔 필요가 있다”며 “월성부른 종목만 상장시키고, 혜택을 통해 지원해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천정부지 금값에 ETF 수익률 15% 꺾춤

3개 은행 골드뱅크 잔액 2조 넘겨 올해 상반기까지 상승 이어질 듯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공공행진하자 못침돈이 금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과 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이달 22일 기준 골드뱅

킹 잔액은 총 2조14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1조9296억원)보다 2198억원(11.4%) 증가했다.

3개 은행 골드뱅크 잔액은 지난해 3월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 들어 2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불과 10개월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은행을 통해 금 현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골드바 상품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5대 은행에서 이달 1~22일 판매된 골드바는 총 716억7311만원어치로 집계됐다. 지난달 월간 판매액(350억587만

원)의 2배 수준이다. 이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같은 기간 판매된 골드바 중량은 286kg에 달해 지난달(133kg)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일부 은행은 수급 불안 문제로 개당 2억7000만원이 넘는 1kg 중량의 골드바만 취급하고 있지만, 실버바의 경우 가격 급등에 따른 품귀 현상 때문에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판매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금·은 관련 상품도 들쭉이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KRX 금 현물’은 올해 들어 이날(26일)까지 15.1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ACE KRX 금 현물’은 15.08%, ‘KODEX 금 액티브’는 16.41%, ‘SOL 국제 금’은 15.89%로 모두 15%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 선물형 상품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TIGER 금은선물(H)’은 18.92%,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는 15.92% 상승하며 금 가격 상승 흐름을 반영했다.

금값이 오르자 은 가격도 덩달아 오르며 은 ETF도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 은값은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선 후

1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금과 은 ETF 가격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지만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ACE KRX 금 현물’을 1400억원, ‘TIGER KRX 금 현물’은 666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KODEX 은 선물(H)’은 3776억원 순매수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금값이 연평균 5300달러 선을 유지하며 6000달러 이상을 시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장 독립 분석가 로스 노먼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금값은 최고 온스당 64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며 “평균 가격은 5375달러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지난해 펀드 순자산 1376조… 18년 만에 최대 성장률

모든 유형서 전년보다 증가

작년 12월 말 전체 펀드(공·사모)의 순자산총액은 137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6일 금융투자협회 ‘2025년 펀드시장 결산’ 자료에서 따르면 작년 12월 말 전체 펀드(공·사모)의 순자산총액은 1376조3000억원으로 2024년 12월 말(1098조7000억원) 대비 277조6000억원

이 증가했다. 공·사모펀드 모두 전년 말 대비 순자산이 빠르게 증가해 전체 펀드시장은 2007년(31.9%)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25.3%)을 기록했다.

전체 펀드 기준 모든 유형에서 전년 말 대비 순자산총액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식형(102조5000억원), 채권형(42조9000억원), 재간접형(28조2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작년 증시 호조 등으로 전체 펀드 중 주식형 펀드

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말 12.2%에서 17.2%로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펀드(공·사모) 기준 모든 유형에서 자금이 순유입됐고, 총 168조9000억원이 순수하게 들어왔다.

작년 12월 말 국내 투자 펀드 순자산총액은 872조2000억원(전년 말 대비 174조9000억원 증가)으로, 전체의 63.4%(전년 말 63.5%)를 차지했다. /신하은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

원자력 ETF 수익률 1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원자력 TOP10 상장지수펀드(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원자력 ETF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영업일인 지난 23일 기준 ACE 원자력 TOP10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42.30%로 집계됐다. 이는 ‘원자력’ 키워드로 상장된 국내 ETF는 9개 중 가장 높은 성과이



다. ACE 원자력 TOP10 ETF는 최근 1년 및 3년 또한 164.88%와 391.1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ACE 원자력 TOP10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22년 6월 상장한 상품이다. /허정운 기자

산업혁신 기반구축에 2685억 투입 AI전환 설비·연구기반센터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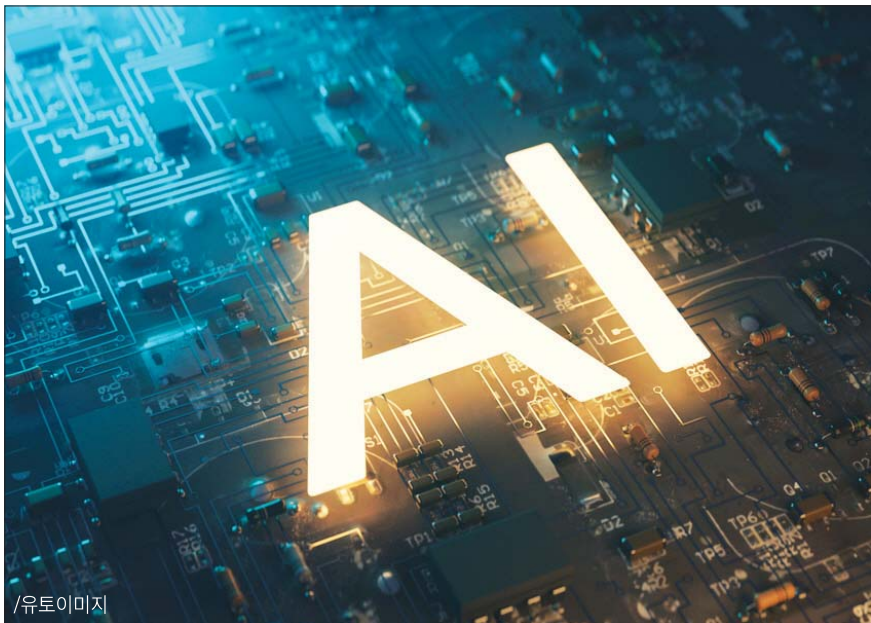
산업부, 올해 28개 신규과제 선정
AI기반 제조혁신 인프라 대폭 확대
제조 AI전환 장비·시설집중 구축
AI·반도체·이차전지 중심 과제 추진
산·연 공유형 연구공간 의무화 적용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과 초격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자금을 투자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기업 단독으로 구축하기 힘든 연구·실증 인프라를 공공 기반으로 확충해 산업 전반의 기술 자립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5% 늘어난 규모로, 2022년 이후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하며, 이 중 약 40%를 AI 기반 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해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연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을 의무화한다. 전국 각지 연구기반센터 내



에 공유형 연구공간을 조성해 앵커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실증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연구기반센터가 단순 장비 제공을 넘어 ‘산업기술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조성된 연구기반센터는 2025년 기준 전국 286개다.

이와 함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 이 우수한 자립과 센터의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연구기반고도화형 기반구축’, ▲가상 실험과 자율 실험을 통해 실험 계획부터 결

과 도출까지 지원하는 ‘AI 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도 병행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공고는 1월 27일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 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인프라를 통해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미령 “수라학교로 한식교육 확대”

농식품부, 한식교육기관 설립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K-푸드의 위상이 격상된 상황을 기회로 ‘한식 교육’ 확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송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 유명 조리장들과 만나 이른바 ‘수라학교’의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한식교육기관) 수라 학교를 통해, 한식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식문화 장르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한식과 K-푸드 위상이 높아진 지금이 한식 교육을 확대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K-푸드 및 한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염

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왔다. 이에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중인데, 이달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세부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한식 전파 및 K-푸드 수출을 견인할 글로벌 한식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올 하반기 수라학교 설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리장·식품기업·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현장역량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민간기관을 통해 한식 산업 전(全)주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해 소수 정예 대상의 고품질 교육을 추진한다. 세계 미식 시장을 선도할 한식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설 맞아 ‘농심천심동심’ 특별할인

농식품·영농자재·유류 동시 할인

농협이 설 명절을 맞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농심!천심!동심!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농협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고자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 최초로 농식품과 영농자재, 유류를 동시에 할인 판매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농협이 준비한 510억 원은 자체예산 362억 원과 정부지원 135억 원, 자조금 13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설 특판행사를 비롯

해 물가안정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설 성수품목 수급상황과 판매동향을 점검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설 성수품목(사과, 배, 한우 등) 및 물가안정 품목(배추·계란·라면·참기름 등)을 기간에 따라 최대 65% 할인하며 NH싱싱물(농협물)은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아울러 NH-OIL 주유소에 난방용 등유를 리터당 30원 할인 공급하고, 농협자재판매장에는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 공급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동시에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새만금 조력발전 실행계획 수립 ‘첫발’

농어촌공사, 기본구상 용역 입찰 공고
편익·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검토
수질개선·치수효과·운영방안 도출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수문증설 및 조력발전 기본구상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새만금 조력발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적정 수문규모 및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이 용역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새만금 수문증설 및 조력발전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의 후

속 조치다.

공사는 이번 입찰을 통해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새만금 수문 증설·조력발전 사업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새만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유력한 조력발전 후보지로 꼽혀왔으나 경제성 확보 등이 선결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사는 용역을 통해 조력발전 도입 시 예상되는 수질 개선과 홍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 수문 및 발전시설의 최적 규모와 운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용역에 선정되는 수행사가 맡는 과제

는 ▲조력발전에서 발생하는 편익 및 경제성 분석 ▲새만금 유역 전반의 지형·수질·수문 등 조사 및 분석 ▲수질 개선 효과와 주요 생물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문·수차 최적 규모와 조력발전 방식 검토 ▲새만금 RE100 산단 연계성 분석 ▲전력 계통 연계 방안과 재생에너지 정책 부합성 검토 ▲수문 및 조력발전 시설 최적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공사는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3월 중 계약을 체결해 과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중관계 복원”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략적’ 경제협력력을 거론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통상 교류를 복원하는 등 지정학적 갈등에 유연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양상의 지정학적 갈등이 국제경

제 질서 전반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관세 등 각종 통상 조치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 지속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략적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위기 관리 역량뿐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

요하다”며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K-컬처 등 우리 강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9년 만의 국빈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콘텐츠·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방글라데시 CEPA 협상 진전 ‘속도’

산업부, 서남아 진출 교두보 기대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월 26일 ~ 29일까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한·방글라데시 CEPA 2차 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손호영 산업부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과 아예시아크터방글라데시상공부대외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대표단 약 60명이 참석한다. 협상은 상품 양허, 서비스,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양국은 지난 2024년 11월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2025년 8월 열린 1차 협상에서 협정문 전반에 대한 기본 입장

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했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쟁점에 대한 심화 논의와 입장차 해소에 집중해 협상 진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유망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서남아 핵심 시장으로, CEPA 체결 시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호영 총괄과장은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의 서남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통합 명칭 ‘광주전남특별시’ 잠정 합의… ‘3개청사’ 균형 운영

광주시청·전남도청·동부청사 운영
통합교육감 6·3 선출유지 학군현행
인사교류 원칙 ‘보장’ 수정 우려반영
특별법 발의 앞두고 특례·입법 조율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도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가안)로 잠정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시·도 청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광주시청·전남도청·전남도 동부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도청으로 하기로 했다. 통합교육감 선출 문제는 지난 14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 이뤄진 4차 합의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한 기존 안을 유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오후 4시 광주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회의를 열어 가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점검·보완했다.

다음 주 특별법안 발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3차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이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 직후 합의안 공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광주구청장 협의회, 전남시군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명칭과 청사배치 문제, 공무원 인사권 보장, 학군 조정 등 교육자치 문제, 통합 교육감 선출에 따른 이견, 법률인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3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명칭과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등에 대한 많은 논의 결과 1차 가안으로는 특별시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광주나 전남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현재

안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 조항을 ‘보장한다’로 문구를 수정해 발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 자치 분야 논의 안전 중 하나였던 학군제에 대해 그는 “현행을 유지하고, 통합교육감이 학군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교육감은 (기존 안대로) 1명 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교육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대전제”라며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교육자치 후퇴, 학군 문제, 교육공무원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특례로 담고, 통합 교육감은 6·3 지방선거에서 뽑는다.”라고 말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1차 조찬간담회와 공청청회를 연 데 이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 만나 입법 발의 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내달 2일부터 ‘대구로페이’ 판매

대구시는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기 위해 2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로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공공배달앱 ‘대구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즉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30만 원, 보유한도는 50만 원이다. 대구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올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대구로페이를 발행할 계획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사천시

계약서류 통합, 민원 불편 해소

사천시가 계약 과정에서 제출하던 각종 서류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 불편을 대폭 줄인다. 사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 부서 및 읍·면·동에서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최대 15종에 달하는 서류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시는 계약 체결과 대금 청구 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서류를 하나의 통합 서식으로 대체해 계약 상대자의 시간과 부담을 크게 줄이고, 단순·반복적인 행정 처리 축소로 계약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해남군

원도심에 초콜릿거리 조성

해남군은 해남읍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현재 총 5곳의 로컬 수제 초콜릿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초콜릿 거리는 해남읍 상권의 중심지인 읍내리·성내리 일원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수제 초콜릿 체험장과 판매장 등 거점 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초콜릿 판매장은 2024~2025년에 걸쳐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콜릿 아카데미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창업 및 매장 복합화가 이뤄졌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도

관광 취약계층 여행상품 지원

전남도는 지역 내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도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째인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과 거동 불편으로 여행이 어려운 관광 취약계층에게 여행상품을 지원하는 전남도 대표 복지관광 시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최대 5000명 규모다. 1인당 당일 여행은 18만원, 1박2일 여행은 38만원 상당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지원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 건설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기업 현장지원 전담조직(TF)회’에 앞서 김두겸(왼쪽 세번째)시장, 이동석(왼쪽 두번째) 현대자동차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울산, 투자기업 행정지원 전면 확대

사전 컨설팅·애로해소 리스크 점검 신속 인허가·규제개선 사업 가속

울산시는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기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행정 지원이 필요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투자 컨설팅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정부 규제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친기업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현장 지원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해 왔는데 올해 모든 투자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권역별 책임관은 ▲울산·미포국가산단(남구), 울산테크노산단 등 중부권 ▲온산국가산단, 에너지융합산단 등 남부권 ▲하이테크밸리, 길천·반천산단 등 서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북구), 이화·매곡산단 등 북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동구) 등 동부권으로 총 5개 권역으로 운영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북,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바이오진흥원, 현장상담 맞춤형 컨설팅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이 도내 농생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바이오진흥원은 오는 2월 2일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들이 2026

년도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을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KOTRA 전북지원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총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핵심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전북=김종일 기자 kij7219@

부산, 표준지가 평균 1.92% 상승

전국 평균 3.36%보다 낮은 상승률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1.9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 3.36%를 밑도는 수치다.

부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부산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92%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 복지 수해 등 각종 제도의 공적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시세 반영률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는 총 2만 424필지다. 전국 평균 상승률 3.36%와 비교하면 ▲서울 4.89% ▲경기 2.71%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2.74%) ▲수영구(2.71%) ▲강서구(2.58%) ▲동

래구(2.28%) ▲부산진구(1.97%)가 시 평균(1.92%)을 웃돌았다. 나머지 11개 구·군은 시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중구(0.67%)와 사하구(0.80%)는 0%대 변동률을 기록했다.

부산 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가와 최저가 토지는 지난해와 같다. 최고가는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로 ㎡당 4372만원이며 전년과 동일하다. 최저가는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당 109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암군, 교동지구에 ‘현충공원’ 조성

4869㎡ 부지 사업비 23.4억 투입

영암군이 지난 23일 영암읍 교동지구에서 지역 보훈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 현충공원 착공식’을 열고, 국가유공자 등을 기리는 추모·기억의 공간 조성에 착수했다.

영암 현충공원 조성사업은 추모·기억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일상에서 복돋을 수 있는 경관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족과 참배객들의 이동·접근 편의성도 높인다.

현충공원은 4869㎡ 부지에 총사업

비 23억4000만원을 들여 ▲충훈탑 ▲기억의벽 ▲기념광장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갖춘다.

영암군은 입지 선정 단계부터 보훈단체 회원,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공사 기간 안전관리 강화, 주변 불편 최소화 등 만전을 기해 건립을 마치고 영암군민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현충공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성되는 공간이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 붐물… ‘제2의 탕후루’ 전략 우려도

‘두쫘쿠’ 등 젊은 층 중심 인기몰이
원재료 수급 불안·가격급등 이어져
식품·유통업계, 제품생산 갈림길

두바이쫘득쿠키, 이른바 ‘두쫘쿠’가 디저트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마시멜로를 결합한 이 디저트는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카페와 베이커리는 물론, 대형유통 채널에서도 판매에 나서 하나의 유행 공식에 올라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화려한 열풍 이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식품·유통업계의 신중론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원재료 수급 불안과 급등한 가격, 짧은 유행 주기에 대한 경계심이 맞물리며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를 속속 내놓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두바이식 카다이프 뽕카롱’을 선보였으며, CU는 지난 14일부터 ‘두바이 미니 수건 케이크’를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이밖에 ‘한입 두바이 쫘득 찰떡’, ‘두바이 쫘득 초코’ 등 추가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등 디저트 진열대 한켠을



고객들이 두바이식 카다이프 뽕카롱을 고르고 있다.

/세븐일레븐

‘두바이 존’으로 채우고 있다.

베이커리의 경우 파리바게뜨가 최근 ‘두바이 쫘득볼’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양재 본점과 판교 랩오브 파리바게뜨점, 광화문 1945점 등 직영 3개 매장에서만 한정 판매중이다. 던킨 역시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과 ‘K두바이st 흑임자 도넛’을 선보였고, 후속 제품을 추가로 개발 중이다.

하지만 제품 생산에 뛰어들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큰 걸림돌은 원재료 확보다. 두쫘쿠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는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동 현지에서도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피스타치오와 화이트 초콜릿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며 “두쫘쿠는 그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유행이식을 경우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프랜차이즈와 대형 식품사들은 점주 재고 부담과 가격 논란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쫘쿠는 개당 7000~8000원대로 판매될 만큼 단가가 높은 편인데 프랜차이즈 구조상이

가격대를 그대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카페 자영업자의 사정도 녹록치 않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두쫘쿠 열풍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과 품귀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두쫘쿠가 아닌) 기존 시그니처 메뉴에 쓰던 피스타치오와 화이트 초콜릿 가격이 급등했고, 아예 재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두쫘쿠랑 관련도 없는 메뉴인데도 재료 수급이 어려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열풍이 대만 카스테라, 벌집 아이스크림, 탕후루 등 과거 유행 디저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의 경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지만, 1년 안팎의 전성기를 지나며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원재료 가격 상승, 과잉 출점, 건강 논란 등이 겹치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가격과 원가 변동성이 커 시장이 과열될수록 부담은 현장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제품



하림 ‘2026 설 선물세트’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설을 앞두고 ‘2026 설 선물세트(사진)’를 출시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한 닭가슴살 캔햄 세트, 혼자 보내는 설을 즐겁게 맞을 수 있는 간식 세트까지 풍성한 구성을 실속 있게 만나볼 기회다.

먼저 ‘하림 베스트 세트’는 치킨너겟 등 다 함께 즐기 좋은 하림의 대표 상품들을 담았다.

고기, 채소 원물 그대로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일품요리와 보양식을 담은 ‘프리미엄 HMR 세트’도 눈길을 끈다.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들도 분위기를 내기 좋은 간식 전용 ‘情(情)·福(복) 세트’도 마련했다.

이번 출시된 하림 ‘2026 설 선물세트’는 현재 하림몰에서 판매 중이며, 내달 13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삼양식품, 명동시대 개막… “새 환경에서 혁신 기업문화 조성”

명동 신사옥 ‘글로벌 전초기지’ 역할
기존 사옥은 영업·물류 거점 활용

삼양식품이 본격적인 명동 시대를 개막했다. 명동 신사옥 이전을 통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삼양식품은 26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신사옥으로 본사 이전을 마치고 임직원들이 첫 출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옥 이전은 1997년 성북구 하월곡동 사옥 준공 이후 약 28년 만이다. 급격한 글로벌 성장세에 걸맞은 업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삼양식품의 이번 명동 이전은 브랜드의 상징성과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을 모두 고려했다. 명동은 김정수 부회장이



삼양식품 명동 신사옥.

/삼양라운드스퀘어

과거 한 음식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불닭볶음면’을 탄생시킨 상징적인 장소다.

배경에는 폭발적인 사세 확장이 자리 잡고 있다. ‘불닭(Buldak) 브랜드’의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10년 새 임직원 수가 약 2배 급증하면서 기존 하월곡동 사옥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신사옥은 연면적 2만 867㎡,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로 본사 인력뿐만 아니라 그간 분산되어 근무하던 삼양라운드스퀘어 주요 계열사 인력까지 한데 모아 업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명동 신사옥은 삼양식품의 ‘글로벌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한 명동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K-푸드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

서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이전을 기점으로 현지 맞춤형 전략과 수출 드라이브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도심 중심부 입지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명동 신사옥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삼양식품이 글로벌 식품 시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환경에서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전 세계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하월곡동 사옥은 영업 및 물류 조직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정관장

홍삼정 스페셜 에디션

정관장이 ‘홍삼정’을 차로 즐기기에 적합한 ‘울림잔’을 더한 ‘홍삼정 스페셜 에디션(사진)’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에디션은 정관장의 대표 제품인 ‘홍삼정’에 상위 10% 수준의 양삼을 더한 특별한 ‘홍삼정’을 광주주의 ‘울림잔’과 함께 구성한 제품이다.

‘홍삼정 스페셜 에디션’은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을 담은 새하얀 ‘월백 울림잔’과 푸릇한 소나무의 결을 담은 ‘미송 울림잔’을 담은 2종으로 구성됐다.

한국의 미를 담은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는 도자기의 색감과 유려한 곡선미는 ‘홍삼정’의 깊고 진한 풍미를 완성도 높게 표현한다.

/신원선 기자

무신사, 30일 ‘스토어 명동’ 오픈

K-패션 트렌드 경험 공간으로 설계

무신사가 이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 상권에 패션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신규 매장을 선보이며 오프라인 점점 확대에 속도를 낸다.

무신사 스토어 명동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992㎡(약 300평) 규모로 조성됐다.

매장에는 ▲미드나잇 무브 ▲에즈유아 ▲오버듀플레이 ▲투에투아 등 명동점을 통해 오프라인 스토어에 처음 입점하는 브랜드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나이스고스트클럽 ▲미세키서울

▲배드블러드 ▲허그유어스킨 등 무신사 스토어 인기 브랜드를 엄선해 소개한다.

명동점은 무신사 스토어 전 매장과 동일하게 온라인의 편의성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한 O4O(Online For Offline) 시스템을 적용했다. 전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QR 코드를 통해 회원 혜택가 연동, 실시간 재고, 후기, 스냅 콘텐츠 등 콘텐츠를 제공한다.

무신사는 매장 오픈을 기념해 내달 12일까지 젊은 여성 고객층으로부터 주목받는 ‘배드블러드’ 브랜드 팝업도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홈플러스, 미국산 계란 한 판 5990원 판매

31일부터 선착순… 1인당 2판 제한

홈플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산 계란을 긴급 공수해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달 3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서귀포점 제외)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미국산 백색 신선란(30구)’ 4만 5000판을 한 판당 5990원에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미국산 계란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가격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

내산 특란 30구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7229원이다. 홈플러스가 내놓은 미국산 계란은 이보다 약 17% 이상 저렴하다. 홈플러스는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인당 구매 수량을 2판으로 제한해 선착순 판매한다.

이번 물량 확보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시범 수입 물량을 홈플러스가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이뤄졌다. 수입된 계란은 5일간의 철저한 검역과 위생 검사, 세척 및 소독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다.

/손종욱 기자

GS25, 구미서플리 3종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일본 여행 시 필수 구매 용품으로 꼽히는 UHA 미카쿠토의 ‘구미서플리’ 3종을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철분, 비타민 C, 멀티비타민 등 3종이다. 이 중 철분과 비타민 C 제품은 국내 식약처 기준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았으며, 멀티비타민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하루 2알씩 10일간 섭취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5800원이다. GS25는 출시를 기념해 2월 말까지 4900원에 할인한다.

/손종욱 기자

삼바에피스, 연매출 1조6720억 달성… 바이오시밀러 효과

마일스톤 제외 전년비 매출 28% ↑
美 사보험사 PBM 공급 채널 확보
유럽서 판매 제품 수 10개로 늘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매출 1조6000억원을 넘기며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홀딩스는 2025년 연간 매출 1조672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9%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3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다만 회사측은 일회성 수익인 ‘마일스톤(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대가)’을 제외한 제품 판매 성과는 전년대비 매출이 28%, 영업이익이 101% 각각 늘었다고 설명했다.

마일스톤을 제외한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은 신규 제품의 판매 실적이 뒷받침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회사측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에서는 현지 마케팅 파트너사와의 협업과 사보험사 PBM(처방약급여관리업체) 공급 채널 확보의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활용해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제품 2개를 새롭게 출시(스텔라라·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했다. 특히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파트너십과 더불어 대형 PBM이 자사 브랜드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체 상표(PL)’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며 조기에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에서는 파트너사 협업을 통해 직접 판매에 나서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에서 2016년 첫 제품을 출시(SB4, 엔브렐 바이오시밀러)한 이후 10년만에 판매 제품 수를 총 10개로 늘렸으며, 그 중 4개의 제품(솔리리스·프롤리아·엑스지바·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을 현지 영업망을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특히 만료 앞둔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7종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파이프라인을 20종으로 확대하여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사업으로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통해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는 ADC(항체-약물 접합체) 분야의 신약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올해 첫 번째 신약 후보물질(SBE303)의 글로벌 임상 1상 개시에 이어, 매년 1개 이상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약 개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바이오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는 26일 첫 번째 실적발표를 통해 2개월 간의 연결 실적으로 매출 2517억원, 영업손실 636억원을 공시했다.

회사측은 기업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조정 및 연구개발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개월분 실적에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실제 현금 흐름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주회사 체제의 사업 구조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관계자는 “올해 자회사들의 주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지주회사 체제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난해 대비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 매출을 1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HLB, 간암신약 허가 재신청

심사과정 보완 요구사항 반영해 진행
‘간암 1차 치료제’ 중 생존기간 최장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와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간암 신약 허가 재신청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엘레바는 전분자 화합물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VEGFR)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약허가신청(NDA)을, 항서제약은 항 PD-1 항체인 ‘캄렐리주맵’에 대한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각각 제출했다. 두 약물은 병용요법으로 임상이 진행돼 FDA는 이를 하나의 치료제로 간주해 통합 심사한다.

이번 재신청은 이전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됐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맵 병용요법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절대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23.8개월을 기록하며, 현재 ‘간암 1차 치료제’ 가운데 가장 긴 생존기간을 입증했다.

특히 다양한 환자군별 분석에서도 일관된 효능과 관리 가능한 안전성을 보였다. 최종 임상 데이터는 지난해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인 ‘랜셋 온콜로지’에 게재됐다.

HLB 측은 “이전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을 충실히 보완하는 한편 제출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정비해 재신청을 진행했다”며 “향후 심사 절차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고 FDA와의 소통에도 성실히 임해 회사가 기대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일동제약, 약사회와 만든 ‘생유산균’ 선택

경기도약사회와 협업

일동제약이 경기도약사회와 공동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하루한포 장건강 생유산균(사진)’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루한포 장건강 생유산균은 분말 제형의 막대형 제품이다. 하루 한 포로 장건강,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 활동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균 원료 19종을 함유한다.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에 특허받은 4종 코팅 기술을 적용했다. 유산균이 장까지 잘 도달하도록 설



계한 것이다.

또 투입 균 수 및 보장 균 수를 각각 500억 CFU와 100억 CFU로 높였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면역 기능 및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며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 등을 더했다.

/이청하 기자

“프라이머로 24시간 밀착 메이크업 완성”

에스쁘아 ‘메이크업 본딩 프라이머’

아모레퍼시픽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에스쁘아에서 신제품 ‘메이크업 본딩 프라이머(사진)’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메이크업 본딩 프라이머는 피부 결 사이 미세한 각질과 요철로 인해 생기는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메워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피부 위에서 겹들지 않고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돕는다.

촉촉한 제형이 피부결을 정돈한 뒤 쫄쫄한 부착감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 필름포머 3%, 베이스 메이크업 밀착을 돕는 피토-본딩 콤플렉스 등이 메이크업 지속력을 강화해 준다.



에스쁘아 브랜드 관계자는 “오랜 시간 처음 바른 컬러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쁘아 ‘메이크업 본딩 프라이머’는 무신사에서 단독 선공개된다.

/이청하 기자

동화약품 ‘큐립연고’ 은은한 마일드허브향

동화약품은 입술염 치료제 ‘큐립연고’ 마일드허브향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큐립연고는 국내 유일 입술 갈라짐과 입술염 치료 목적의 일반의약품이다.

에녹솔론, 알란토인, 피리독신염산염, 토코페놀아세테이트, 염화세틸피리디늄수화물 등을 한 데 처방한 복합제로 입술 갈라짐, 짓무름, 구순염, 구각염 등 입술 트러블에 효과를 갖췄다. 특히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은 들어 있지 않다.

이번 신제품 마일드허브향은 기존 프레쉬로즈향 대비 더 은은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향에 민감한 사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아이디얼 포 맨’ PX에서도 만나요”

CJ올리브영, 기획세트 선배

CJ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 ‘아이디얼 포 맨’이 국군복지단 군부대마트(PX)에 입점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디얼 포 맨은 남성용 브랜드로, 대표 제품인 ‘퍼펙트 올인원(사진)’ 150ml 본품에 30ml를 추가 증명하는 기획세트를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피부 보습과 탄력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7년 출시 후 누적 판매량 230만 병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 PX에 입점해 2주 만에 초도물량이 전량 판매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담에서 각 회원국 정상들에게 제공한 공식 선물에 포함되며 K뷰티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주목받은 바 있다.



사용법과 남성 피부에 최적화된 성분 설계를 갖췄다.

CJ올리브영 브랜드 관계자는 “이번 입점은 속도가 생명인 군 생활 중에도 스킨케어를 통해 자기 관리를 지속하고자 하는 장병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으로 거둔 성과”라며 “퍼펙트 올인원은 간편함은 물론 제품력을 바탕으로 군 장병들의 자기 관리 파트너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비타500 이온킵 제로’ 비타민과 수분 한번에

광동제약은 수분과 활력을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제로 이온음료 ‘비타500 이온킵 제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타500 이온킵 제로는 비타민C 500mg과 전해질 5종(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염소)을 함유해 비타민C 일일 권장량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 당류와 칼로리를 ‘제로(0)’로 설계했고 보존료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또 이온음료 특유의 텁텁함은 줄이고 비타민C의 상큼함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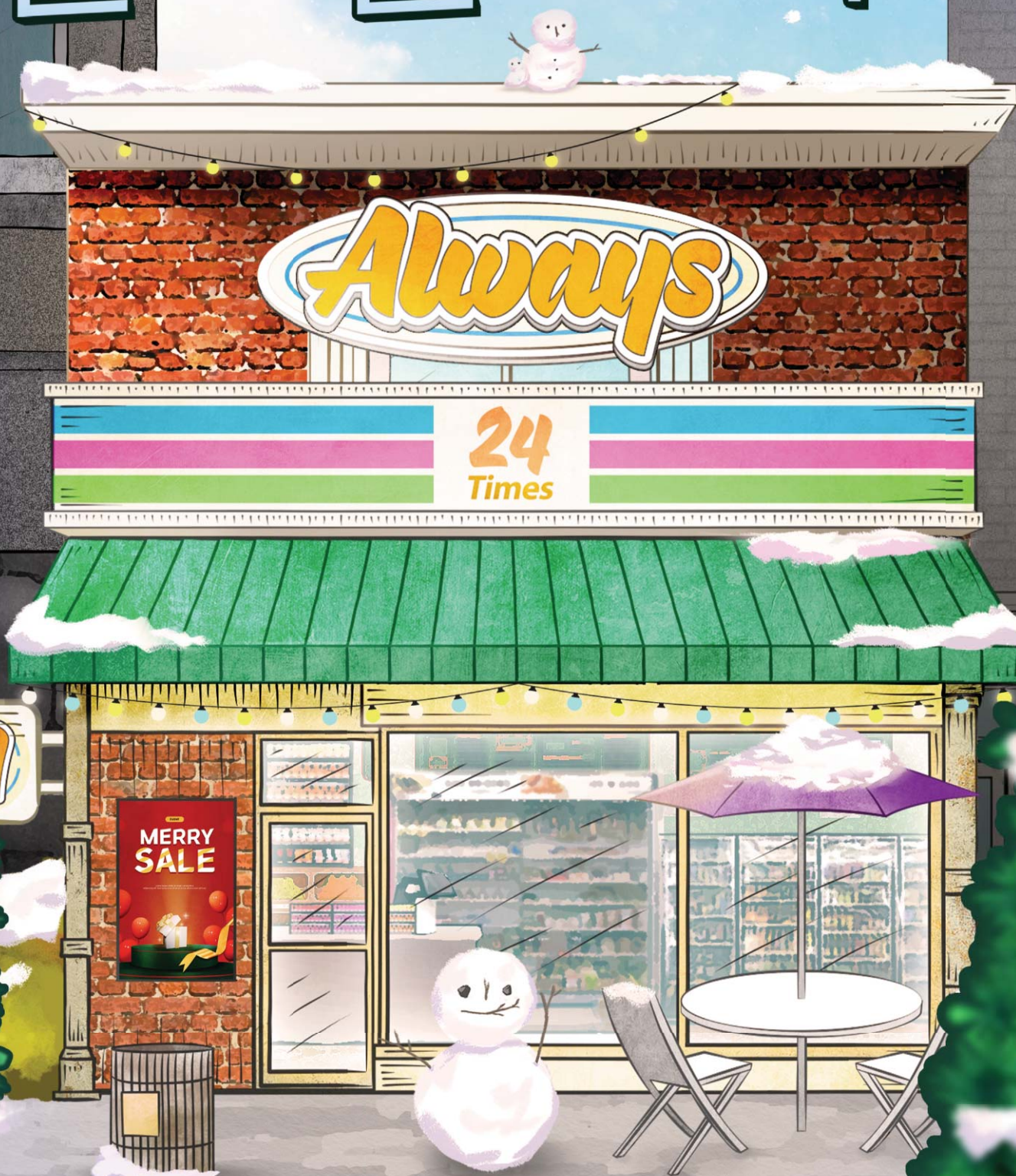
이번 신제품은 캔과 페트 형태의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RTD) 제품이다. 240mL 캔, 500mL 페트, 1.5L 페트 등 3가지 용량으로 출시돼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이청하 기자

라면보다 맛있고, 커피보다 따뜻한,
삼각김밥보다 짭 찬 우리의 이야기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사진 강상욱 | 제작PD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주최·주관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 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신보-행안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주영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오른쪽)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대한조선, 사내 우수 협력사 9곳에 특별 포상

대한조선은 26일 '사내 우수 협력사 포상식'을 열고 지난해 생산성·품질·안전·공정 관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9개 협력사를 선정해 특별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협력사에 대한 실질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상과 별도로 명절 기성대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협력사의 자금 운영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 23일에는 지난해 경영 목표 달성을 기념해 직영 근로자뿐 아니라 협력사 전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대한조선



동아제약, 준법 리스크 관리 'ISO 37301' 인증 획득

동아제약은 26일 서울시 용두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인증 수여식을 열고,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제약



유니클로, 희망브리지에 한파·산불 성금 2억 기탁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겨울철 잇따르는 한파와 산불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유니클로는 국내 최대 재난 구호 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할 '긴급 구호 키트' 제작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유니클로



하나은행-메가존클라우드, 생산적 금융지원 '맞손'

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선도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와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오른쪽)이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이사회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현정은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것”

〈현대그룹 회장〉

신입 매니저 교육수료식 참석
“직원 성장이 곧 기업 경쟁력
AI 대전환 속 판단·실천 필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신입 매니저 교육수료식에 참석해 긍정의 현대정신을 강조했다.

현 회장은 지난 23일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에서 열린 지난해 하반기 입사한 신입 매니저 교육수료식에서 신입 매니저들에게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담대하게 도전해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대그룹이 늘 사람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발전해 온 만큼 여러분의 성장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그룹 미래 혁신과 도약의 밑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또 “인공지능(AI)은 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3일 현대그룹 사옥에서 열린 '신입사원 입문 교육수료식'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은 효율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며 “마지막 판단과 실천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했다. AI 대전환 속에서 구성원들의 선제적인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도

“AI 데이터가 분석한 시장을 해석하는 일은 임직원들의 통찰력과 판단”이라며 “AI 내재화 경영”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 등이 참여했고 ▲교육

삼성전자, 결합형 세탁건조기 美 호평

굿하우스키팅·리뷰드 매체서
‘비스포크 AI 원바디’ 제품 꼽아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원바디’ 결합형 세탁건조기가 새해에 미국 주요 매체들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하단 세탁기와 상단 건조기가 하나로 결합된 것이 특징으로 빨래 양이 많거나 분리 세탁·건조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라이프스타일 매체 ‘굿하우스키팅’은 이달 ‘최고의 결합형 세탁건조기’로 ‘비스포크 AI 원바디’를 종합 평가 1위 제품으로 선정했다.

굿하우스키팅은 세탁 전문가 테스트를 거쳐 옷감 종류·무게·오염도에 따라 최적의 코스를 설정하는 ‘AI 맞춤세탁’ 기능을 높게 평가했다.

사용 패턴을 학습해 자주 사용하는 세탁 코스로 설정하는 스마트 기능도 강점으로 꼽았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원바디’ 결합형 세탁건조기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미국 제품 평가 전문 매체 ‘리뷰드’ 역시 ‘2026년 최고의 세탁기’ 선정에서 ‘비스포크 AI 원바디’를 결합형 세탁건조기 부문 최고의 제품으로 꼽았다.

이 매체는 “세탁과 건조 성능에 충실하면서 유용한 AI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탁기와 건조기 사이 중앙에 조작 패널을 배치한 설계로, 결합형 제품에서 건조기 조작부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 사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파리바게뜨, 美 프랜차이즈 ‘톱30’ 진입

종합순위 29위, 베이커리카페 1위

파리바게뜨가 미국 비즈니스 전문매체 ‘앙트르프러너(Entrepreneur)’가 발표한 ‘2026 프랜차이즈 500(Franchise 500)’에서 종합 순위 29위, 베이커리카페 부문 1위를 기록했다.

파리바게뜨는 2024년 61위에서 2025년 42위, 올해 29위로 매년 순위를 끌어올리며 상위권 ‘톱30’에 진입했다. 올해 프랜차이즈 500 순위 톱30에 이름을 올린 국내 브랜드는 파리바게뜨가 유일하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에서 성장성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다.

‘프랜차이즈 500’은 포브스, 포춘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매거진인 앙트르프러너가 1980년부터 발표해온 평가 지표로, 미국 프랜



파리바게뜨 뉴욕 타임스스퀘어 홀리데이 시즌 광고. /SPC

차이즈 시장 경쟁력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바로미터로 통한다. 매년 북미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 중인 브랜드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규모 및 성장세 ▲프랜차이즈 인프라 ▲마케팅 지원 등 150개 이상의 세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공영홈쇼핑, ‘韓 식품명인’ 상품 선포

‘식품명인 대전’ 특집방송

공영홈쇼핑이 설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 식품명인’ 상품들을 한데 모아 선보인다.

26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식품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식품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정통성, 계승 가치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공영홈쇼핑은 설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3주간 식품명인 14인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식품명인 대전’ 특집 방송을 마련했다.

▲오히석 명인의 ‘전통부각’(26일 오후 6시 40분) ▲문은희 명인의 ‘진명란’(28일 오후 7시 40분) ▲박미희

명인의 ‘도미솔김치’(28일 오후 8시 40분) ▲이금선 명인의 ‘가자미식혜’(31일 오전 10시 25분) ▲최명희 명인의 ‘안동제비원 매주’(31일 오후 12시 50분) ▲김규훈 명인의 ‘영양버’(2월 1일 오후 11시) 등을 판매한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개국 이후 우리 전통 먹거리의 판로 지원을 위해 식품명인의 상품을 꾸준히 발굴해왔다. 지난해에는 전통장, 김치, 젓갈, 한과, 곱창김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7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비롯한 미식 열풍에 힘입어 식품명인의 상품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명인의 비법이 담긴 우리 먹거리와 함께 풍성한 명절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VC협회·한국벤처투자, VC 인력양성

오는 3월 1일까지 교육생 모집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한국벤처투자자와 오는 3월1일까지 ‘제12기 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과정(KAV A)’ 교육생을 모집한다.

26일 VC협회에 따르면 KAVA 과정은 벤처캐피탈 산업 내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2010년 1기를 시작으로 2025년 11기까지 총 39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업계를 대표하는 인력 양성 과정으로 자리잡았다.

주요 교육 내용은 ▲벤처캐피탈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업종별 현황

및 투자 사례 ▲벤처투자 관련 법률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 등으로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4월부터 5월까지 8주간 약 18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월 중 약 4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 수료증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이수 조건부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진다. 수료생에게는 벤처캐피탈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인사

◆우리금융캐피탈 ◇부사장 신임 ▲디지털·IT본부 조한래 ◇상무 신임 ▲기업금융본부 양동혁 ▲IB투자금융본부 이상민 ◇이사대우 신임 ▲여신관리본부 선용호 ▲리스크관리본부 김지태 ▲토금융본부 임성석

부음

▲신순자 씨 별세, 오우택(한국투자캐피탈 대표이사)·영란 씨 모친상, 신성주(전 강남구약사회장)씨 시모상, 나병록 씨 장모상 = 24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장지 안성 유포피아추모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국가 권력이 지역으로 흐르려면



기고
유 신 옥
국회의원 보좌관

수십 년 전, 인터넷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만든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는 무모함으로 비쳤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도전은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정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과 제도, 관행이라는 틀을 벗어나 이상과 상상, 대안을 꿈꿀 때 정치는 생동감을 되찾고 국민의 삶을 바꿔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정치적 상상력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목격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무상 복지 시리즈와 공공산후조리원, 수술실 CCTV 설치, 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보여준 지역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스마트 신호등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과감한 시도라는 우려와 비판도 있었지만, 이러한 창의적 정책들은 결국 주민의 지지를 얻으며 국가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이 증명한 것은 지역정치 현장에서

길어낸 ‘상상력’과 이를 현실로 구현하는 ‘역량’이 만날 때 비로소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희망적으로도 이러한 혁신의 DNA가 최근 청년 정치인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의정부시의 한 청년 지방의원은 단체장의 불투명한 재정 운용 비판하며 시(市)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복잡한 재정 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시민들이 예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재정 실시간 공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초구의 한 청년 지방의원은 기존 종량제봉투 디자인의 비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깨알 같은 글씨와 복잡한 설명 탓에 어떤 품목이 일반 쓰레기에 해당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시민의 불편과 자원 재활용의 저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디자인이라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정보를 시각화하고 재배치해 쓰레기봉투를 전면 재구성했다. 이러한 쓰레기봉투는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대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일일이 주민들에게 공개하느냐는 회의론, 지금껏 이어

져 온 쓰레기봉투 디자인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역 현장에서 길어올린 문제 의식과 이를 풀어낸 창의적 해법은 결국 주민의 삶을 바꿔놓았다

결국 정치가 국민과 가까워지려면 중앙에 집중한 권력의 무게중심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이 국회로 이양되는 과정에 ‘민주화’라는 극적인 동인이 필요했듯이,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흘려보내려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희망을 우리 세대 정치인들의 역동성에서 찾는다.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이 된 오늘날,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능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모아내는 통로가 된다.

선배 세대가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렸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중앙집중 권력을 지역으로 흐르게 하는 일이다. 다져진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우리 세대의 치열한 고민이 더해질 때, 대한민국의 권력은 비로소 지역으로, 그리고 국민의 일상으로 흐를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관(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로 갑니다’ 저자

정치권의 목표 ‘국민 통합’...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기자 수첩
박 태 홍
(정처부)

최근 ‘통합’으로 가장 유명세를 탄 건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후 국민 여론이 반전되지 않자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보수 정당 소속으로 5년 공천을 받은 이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하려면 국민 상식에 맞게 ‘제대로’ 해야 한다는 교훈만 남겼다.

이 후보자는 700조가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직책에 맞는 인사라고 보기 힘들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반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이 후보자를 지명한 자체가 년센스였다.

더군다나 이 후보자는 지명 직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성동구를 당협위원장장을 맡은 지역의 주요 정치인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면 이재명 정부에서 스카웃 제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절하는 게 맞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에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그 후 관련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후보자는 수십년간 몸 담은 정당을 배신한 것이고 이는 이 대통령이 기대한 ‘통합’ 효과보다 ‘갈등’의 소지를 키웠음이다분해 보인다.

이 후보자의 인턴 폭언 의혹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이 후보자의 장남은 친할아버지의 장관 이력으로 연세대 입시 자격이 주어진 것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시가(추정) 100억원 상당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로포 청약’ 의혹은 장남이 위장 미혼을 했다는 의심까지 터져 나오며 부적격 논란을 스스로 일으켰다.

혹자는 한국인이 가장 예민해 하는 ‘갑질·입시·부동산’ 의혹이 한꺼번에 터졌으니 이 대통령으로서도 이 후보자를 계속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인선을 통한 국민 통합은 지도자의 결단만 갖고는 불가능하던 진리가 자명해졌다. 국민들은 인선으로 보여주는 통합보다 민생·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을 정책을 통해 해소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효능감 있는 정치 리더십을 바라고 있다. 그 후에 ‘국민 통합’은 따라올 것이다.

/pth7285@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7일 (음 12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도움을 받으나 시비도 발생. 48년생 아집보다는 소탈하게 순리에 따르도록. 60년생 언제나 불평은 주변 발전에 저해가 된다. 72년생 소소한 일에 과민반응을 보이다 손실만 크다. 84년생 언제나 희망이 있으니 실망은 금물.



37년생 꾸미지 않은 소탈함으로 후배의 존경을 받음. 49년생 노후대비는 절약이지 수전노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61년생 파란색 옷으로 기분전환을. 73년생 외출할 생각으로 지출이 과다. 85년생 혈압 당뇨 질환을 조사해 보시길.



38년생 은행 대출도 결국에는 빚이다. 50년생 서두르는 가운데 사고가 염려. 62년생 만사는 초기부터 계획을 착실하게 해둬야. 74년생 모난 돌이 뒤통에 정 맞는다. 86년생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듯.



39년생 명품은 행동부터 바로잡으면 그것이 승격. 51년생 부모님이 계산 것은 하늘의 은총이니 효도하라. 63년생 중이 정이 싫으면 떠나라. 75년생 가정에 충실한 만큼 사고는 멀어진다. 87년생 서두르는 가운데 물건을 잃어버린다.



40년생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꾸준하게 도전해야. 52년생 남쪽에서 재물을 얻는다. 64년생 선배를 왕따하는 것은 그만하고 배울 것은 배워라. 76년생 산과 들에 피는 꽃을 보니 옛 생각이 난다. 88년생 인덕은 내가 먼저 베풀라.



41년생 친구의 애경사는 계산하기보다 참석하라. 53년생 남들이 이루지 못 한 일을 잘해가니 보람. 65년생 음주에 유익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77년생 종이 팔자타령만 하지 말고. 89년생 나쁜 인연이라 생각되던 애초에 만들지 말라.



42년생 문제가 약하니 새로운 일은 만들지 마라. 54년생 주변과 상부상조해야 덕이 생긴다. 66년생 평소 노력으로 승진도 순조롭다. 78년생 믿었던 지인이 등을 돌리지 만 내뺏. 90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라도 양보할 땐 양보해야 할 터.



43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먼저는 격. 55년생 언제나 인연 법은 훗날도 생각해야 한다. 67년생 가화만사성이라 했지만, 직장에도 더 충실히. 79년생 저녁 지나 만나는 이성은 조심해야 할 것. 91년생 정치나 종교에는 관여하지 말 것.



44년생 평소 돈에 지독함으로 고립무원이다. 56년생 협력자에게 능력 선에서 자금 지원도 해줘야. 68년생 이득은 적지만 결과는 좋다. 80년생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데 세상 이치. 92년생 오후에 기다리던 결과가 완결.



45년생 실수는 따르나 걱정은 해소. 57년생 금전거래는 되도록 주고 말로 받으니 기쁨이다. 69년생 좋은 운세를 얻으려면 청소와 문화생활로 주변을 건강하게. 81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 수 있다. 93년생 재물상과가 늦어도 힘내라.



46년생 못하지 않은 곳에서 행운이. 58년생 집안 문제는 다수의결을 찾아서 하라. 70년생 태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온다. 82년생 어려운 일이 풀려가니 중도 포기하는 하지 말도록. 94년생 지하철 도보 때에는 사람들 많은 시간을 피해서 다니라.



47년생 아름답지 않은 인연은 멀리하도록. 59년생 배울 것이 없어도 경청하라. 71년생 직장 내에 문제가 복잡해도 성실히 본인 일에 열심히. 83년생 사고의 대비는 언제나 유혹을 뿌리치는 것. 95년생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베풀라.

김상회의四季

좋은 관상



“사주보다는 관상(觀相), 관상보다는 심상(心相)”이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관상과 심상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 관상은 마음의 표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화가 나면 화가 난 표정은 감출 수가 없다. 열이 올라 뺨빛은 붉어지고 눈초리는 치켜 올라간다. 말투나 목소리도 날카롭고 커진다. 이런 상태가 자주 일어나면 얼굴에 표정이 새겨지고 말 습관 역시 날이 선다.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니 신체적으로 표시가 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의 질이 계속되면 물질인 몸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러니 얼굴에 새겨진 마음의 궤적을 살피는 것이 관상일진대, 그 관상으로 향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경험적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관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관상학은 행동 경험학위다. 인간의 신체나 얼굴의 형상과 빛깔 등으로 운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정 확률 이상의 예측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마가 흰하고 밝게 빛나는 사람들은 관록 운이 좋다. 나라의 관록을 입고 사는 공무원들이나 기업에서 높은 직급의 임원들을 보면 대부분 흰한 이마의 소유자들이 많다. 그래서 출세하고 싶으면 절대 이마를 가리지 말라고 한다. 하늘의 운기를 우선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몸에서는 이마이기에 관록궁이라 부른다. 취직을 위한 면접이나 시험면접처럼 중요한 면접을 볼 때는 당연히 이마를 드러내야 한다. 사주와 관상의 관계도 보면 업의 코드이다. 전생에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사주의 격과 명조가 원만하고 선업의 크기에 비례해 복도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다. 크게 보면 사주팔자와 관상 그리고 심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운명을 이해하는 코드라고 하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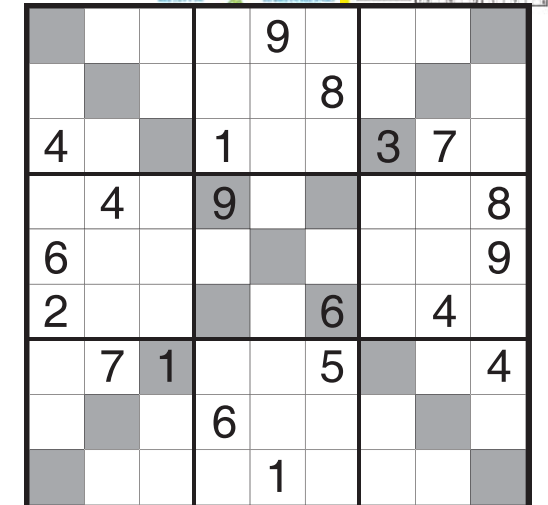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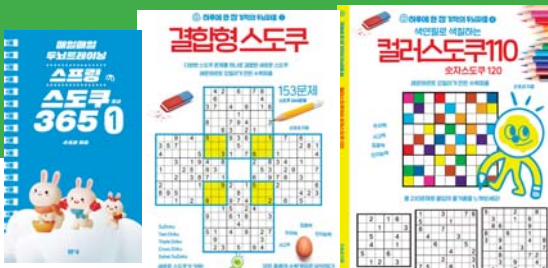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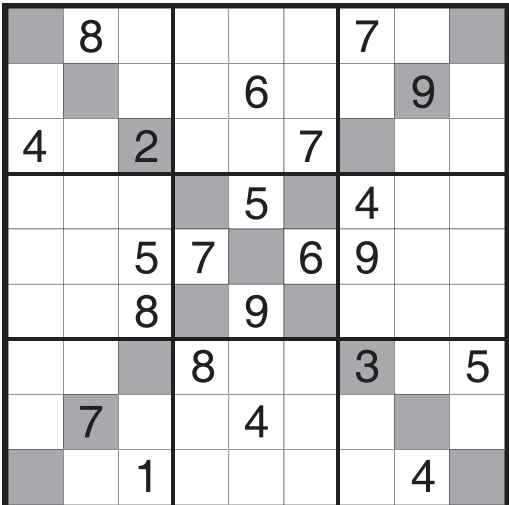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841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945호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ㄴ | ㄷ | 8 | 6 | ㄹ | 9 | 1 | ㄷ | 9 |
| 6 | 9 | 1 | ㄷ | ㄹ | ㄹ | ㄷ | ㄹ | 8 |
| 9 | ㄷ | 8 | 1 | ㄹ | 8 | ㄹ | 6 | 9 |
| 9 | ㄹ | ㄹ | ㄹ | 6 | 8 | 8 | 1 | ㄹ |
| ㄹ | 1 | 6 | 9 | 8 | ㄹ | 9 | ㄹ | ㄹ |
| ㄹ | 8 | ㄹ | ㄹ | ㄹ | 1 | 6 | 9 | ㄹ |
| 8 | 9 | ㄹ | 1 | 6 | ㄹ | ㄹ | ㄹ | ㄹ |
| ㄹ | 6 | ㄹ | 8 | 9 | 8 | ㄹ | ㄹ | 1 |
| 1 | ㄹ | ㄹ | ㄹ | ㄹ | ㄹ | 9 | 8 | 6 |

| | | | | | | | | |
|---|---|---|---|---|---|---|---|---|
| ㄴ | ㄹ | 6 | ㄹ | 1 | ㄹ | 9 | 9 | 8 |
| 1 | 9 | 8 | 6 | ㄹ | 9 | ㄹ | ㄹ | ㄹ |
| ㄹ | 9 | ㄹ | ㄹ | 8 | 1 | ㄹ | 6 | ㄹ |
| 6 | ㄹ | ㄹ | 9 | 8 | 9 | 6 | 1 | ㄹ |
| 8 | ㄹ | 9 | 1 | ㄹ | ㄹ | ㄹ | 8 | 9 |
| 9 | ㄹ | ㄹ | ㄹ | 6 | ㄹ | ㄹ | ㄹ | 9 |
| ㄹ | ㄹ | ㄹ | 9 | 1 | 8 | 6 | ㄹ | ㄹ |
| ㄹ | 6 | 1 | 8 | 9 | ㄹ | 9 | 8 | ㄹ |
| 9 | 8 | ㄹ | ㄹ | 6 | ㄹ | ㄹ | ㄹ | 1 |

시민 10명 중 6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방향성 공감”

지역균형발전·대학서열완화 기대
정책 우선 과제로 지속가능성 꿈아
집중 투자분야에 ‘지방대학 경쟁력’

시민 10명 중 6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 정책의 핵심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서열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구조가 대학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김상우 국립경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58.6%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여의도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한 지역 거점국립대학 전현직 총장·교육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로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32.9%, ‘공감한다’가 25.7%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6%였다. 이번 조사는 교육자, 학부모, 전문직 종사자, 학생 등 총 76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

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내세운 핵심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서열 완화에 대해, 시민들도 일정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기대효과를 묻는 문항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풀림 완화(29.0%) ▲대학 서열 완화(2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다수는 해당 정책을 단순한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연계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86.9%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영향 있다’는 응답이 67.2%에 달했다.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과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정책 성공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유관 국가정책 병행 추진(11.1%) ▲대학특성화 및 지역산업 연계 강화(1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일회성 재정 지원에 그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할 분야로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가 36.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인재양성 역량 강화’는 28.6%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17.2%)와 연구 역량 강화(15.4%)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안상진 교육의봄 연구사업팀장은 “응답자들은 정부 재정이 수도권 등 특정 대학에 집중돼 온 기존 흐름을 넘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아울러 대학 경쟁력을 입시 성적이 아닌 인재를 얼마나 잘 양성하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입결 중심의 대학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58년만에 트램 부활... 내달 위례선 시운전

서울시 교통통제 등 개통준비 만전
5월까지 총 10편성 순차도입 예정

58년 만에 서울 도심에 트램(노면전차)이 다시 들어선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 차량기지과 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월부터 시운전에 착수한다.

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하며, 도로에서 직접 승하차할 수 있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 초도편성 차량을 27일 새벽, 차량기지로 반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1월 초도편성 반입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0편성(초도 1편성 포함)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2월부터는 실제 운행 노선에서 위례



위례선(트램) 차량 모습. /서울시

선 개통을 위한 최종 검증에 나선다. 우선 8월까지 본선 시운전을 통해 ▲주행 안전성 ▲지상설비 연계동작 등 차량에 대한 16개 항목을 종합 검증한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오송 시험선에서 5000km 이상 예비주행 시험을 마쳐 1차 검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12월까지 철도종

합시험운행을 통해 시설물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연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개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 시민 안전 확보하기 위해 위례선 전 구간에 설치된 13개 교차로와 35개 횡단보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별도 상황반을 운영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시운전 차량에는 보험을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한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시운전은 위례선 트램차량과 시설물, 시스템 간 안전성과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단계”라며 “철저한 시험과 검증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도서관, ‘3색 3책 인천북’ 선정

3월 ‘인천북 선포식·북콘서트’ 개최

인천광역시 인천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읽고 공감하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3색3책 인천북’으로 성인·청소년·어린이 분야별 도서 3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3색3책 인천북’은 올해로 12회를 맞은 인천시 대표 독서운동으로, ‘한 도시 한 책’ 사업의 일환이다. 매년 관내 사서들이 주제를 정해 도서를 선정하고, 선포식과 북콘서트, 독서토론회 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독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 주제는 ‘독서의 재발견- AI시대, 다시 바라보는 독서의 가치’로, 인공지능(AI) 시대 속 변화하는 독서 환경과 시민의 독서 인식을 반영했다. 기관별 도서 추천과 인천북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9,108명이 참여한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3권이 선정됐다.

성인 분야 선정 도서는 장강명 작가의 ‘책, 이게 뭐라고’로, 말하고 듣는 세계에서 작가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읽고 쓰는 행위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한 에세이다.

청소년 분야 선정 도서는 김혜정 작가의 ‘흔들리는 십대를 지탱해 줄 다양한 문장들’로, 십 대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

어린이 분야 선정 도서는 최지혜 작가의 ‘그리고 그린 ‘도서관 고양이’로, 도서관에 살게 된 고양이가 그림책 속 세상을 여행하며 도서관과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는 이야기다.

인천도서관은 도서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3월 13일 청학문화센터에서 ‘2026년 3색3책 인천북 선포식&북콘서트’를 개최하며, 독서활동과 연계한 토론회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경기도 ‘레전드50+ 2.0’, 중기부 성과평가 최고등급

도내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기반 강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추진한 ‘경기도 첨단바이오헬스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레전드50+ 2.0’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지역특화 프로젝트 2.0 성과 평가에서 전국 16개 참여 지역 가운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레전드50+ 2.0’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도내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

기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경과원은 산학연 협력기관과 전문 지원기관을 연계해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총 47건, 약 32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기술 고도화, 사업 확장, 연구인력 채용,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 기업 성장 전반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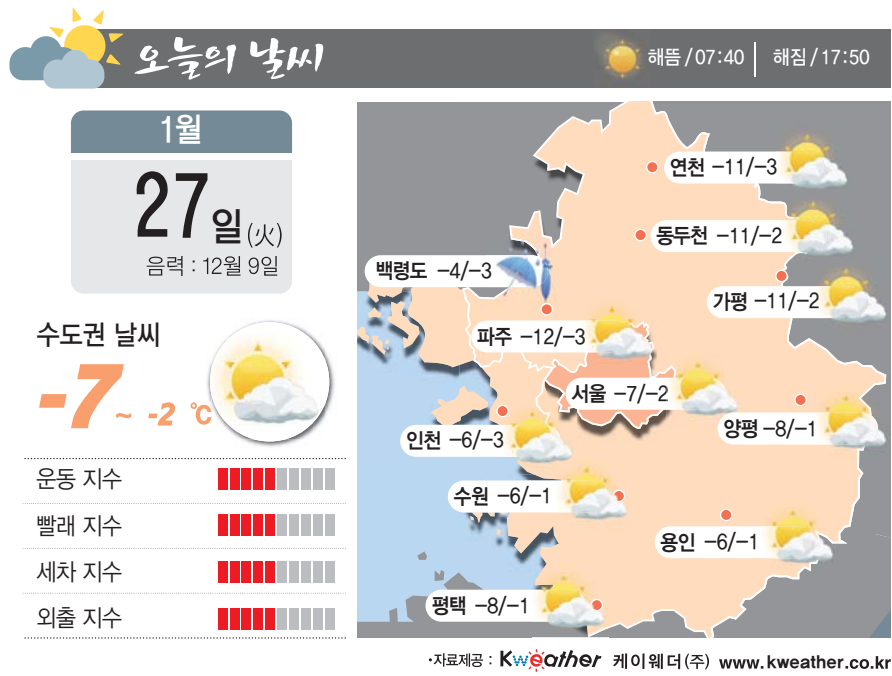
1차년도 지원 성과로 참여기업의 매출액은 370억 원 증가, 수출액은 980만 달러 확대, 신규 고용은 60명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과원은 참여기업의 매출 성장,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 핵심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관리하고, 2차년도 사업에서는 글로벌 진출과 기술 사업화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레전드50+ 2.0 사업은 기술개발, 사업화, 수출, 디지털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기업 성장 지원 모델”이라며 “1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바이오헬스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美민주 “트럼프, 경합주서 혼란 조장해 ‘중간 선거 관리권’ 장악 시도”
▲359명 탄 필리핀 여객선 침몰...15명 사망·28명 실종
/사진 뉴스

▲“軍서열2위 장유사 실각...전례없는 시진핑 권력 집중”
▲ICE, 미네소타서 또 총격...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

▲日당국, 암호화폐 ETF 2028년 허용... 금융상품 인정
▲“이란, 각종 무기로 시위 무자비 진압”... 인터넷 복구로 추가 증언



두바이 디지털 열풍
원가·수급 불안에
‘제2의 탕후루’ 될까
L1

metro®

Life

삼바에피스
매출 1.6조 달성
바이오시밀러 효과
L2



인권 존중, 인재 양성... ‘사람’ 기준값으로 미래 설계하다



LG CNS

LG CNS가 인적자본과 정보보안, 안전보건,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한 사회(S) 부문 ESG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넘어 AX(인공지능 전환) 기업으로의 도약 과정에서 ‘사람’과 ‘신뢰’를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현장 중심 CNS, 피플 케어 프로그램

LG CNS는 ‘인권경영’을 ESG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조직 전반의 제도 정비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 선언 수준을 넘어 근로환경, 차별 방지, 일·가정 양립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LG CNS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인권경영을 사회(S) 부문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임직원과 협력사 전반에 적용되는 인권 원칙을 명확히 했다. 성별, 연령, 학력,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사람·신뢰 중심 사회부문 ESG 강화
근로환경, 차별방지 등 조직제도 정비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
협력사 인권관리·동반성장 프로그램
인권경영, 글로벌 사업 경쟁력 될 것

특히 일·가정 양립과 근로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며, 육아휴직 제도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IT 업계 전반에서 과제로 지적돼 온 장시간 근로 관행과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정례화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문화 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노동, 아동노동, 정치적 거부 등 인권 관련 주요 리스크 항목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사와 공급망을 포함한 인권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LG CNS는 협력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에서 요구되는 ESG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1 LG CNS의 여성리더의 차기 커리어 개발과 네트워킹을 독려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임인 여성 리더 포럼.
2 LG CNS는 IT 역량을 심분 살려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기여에 나서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G CNS AI 지니어스 아카데미에 참석 중인 어린이의 모습.
3 LG CNS 이승찬 디지털AX담당 상무(왼쪽 두 번째)가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정보산업기구(ASOCIO) 어워드 2025에서 ESG 어워드를 수상하는 모습. /LG CNS

로 풀이된다.

LG CNS는 인권경영을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경쟁력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기술 경쟁력 못지않게 조직 내부의 신뢰와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둔 경영 체계가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AX역량과 AI기술로 미래 인재 양성 기여

LG CNS는 사회공헌 활동에서 IT 역량을 심분 살려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기여에 나서고 있다. 단순 기부 중심의 사회공헌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교육·역량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접근이 특징이다.

LG CNS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사회공헌을 사회(S) 부문의 핵심 과제 중 하

나로 제시했다. 특히 청소년과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IT 교육 지원에 집중하며, 기업의 핵심 사업 역량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청소년 대상 AI·IT 교육 프로그램이다. LG CNS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산업 환경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조기에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 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와 도서벽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도 병행해 교육 접근성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여 역시 사회공헌의 주요 축이다. IT 인프라와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단

발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도 사회공헌 범주에 포함됐다. LG CNS는 협력사 대상 교육과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중소 협력사의 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LG CNS는 사회공헌 활동을 ESG 평가 대응 차원의 부수적 요소가 아닌, 기업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기술을 가진 IT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기술 자체를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소년·교육취약계층 대상 IT교육
지역과 협력... 사회문제 해결 앞장

자체 개발한 ‘LG ESG 인텔리전스’
ASOCIO 어워드 ‘ESG 부문’ 수상
체계적·효율적 ESG 목표 달성 지원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LG CNS의 ESG 활동

LG CNS의 노력은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LG CNS는 지난해 11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정보산업기구(ASOCIO) 어워드 2025’에서 ‘ESG 어워드’를 수상했다.

특히 LG CNS는 자체 개발한 ‘LG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ESG 데이터를 통합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 신뢰성과 편의성, 확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 ESG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기업이 ESG 목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SG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사회적 영향도, 거버넌스 지표 등 주요 성과를 정량화 한다. 정량화된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맞춤형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전략 수립, ESG 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LG CNS는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해 ESG 성과 지표와 리스크를 투명하게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LG CNS 이승찬 디지털AX담당 상무는 “ESG 데이터 통합 관리와 분석, 예측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ESG 운영 역량을 확보해 기업고객들의 ESG 경영 디지털 전환을 돕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2연패 도전’ LG 염경엽 감독 “캠프 키워드는 기본기 강화” /사진 뉴시스
▲프로야구 팬 성향 조사 분석...82% “피치클러 등 제도 변화 긍정적”

▲사라진 우승 영광...KIA 양현종 “8위 추락, 반성하고 책임져야”
▲‘LA 공항 여류’ 이정후 “며칠 동안 정신없었다...잘 해결돼 다행”

▲‘승부수 통했다’ 피겨 차준환, 4대륙 선수권대회 은메달... 1위와 0.11점 차이
▲밀라노 올림픽 한국 첫 금메달 주인공, 950만 원 상당 시계 받는다